레위기 강해

AN EXPOSITION ON THE THIRD BOOK OF MOSES, CALLED LEVITICUS

〔3판-수정중〕

김효성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24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 사도 바울(갈 3:6; 딤후 3:16)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진술된 대로(1:8),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전통적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중요히 여기며 야곱 벤 카임에 의해 편집한 제2 랍비 성경(봄버그판)을 표준적 본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으로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성경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강해는 성경 본문의 뜻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도들은, 유일한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강해는 오직 작은 참고서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심히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간절함과 건강을 주시고 또 약한 남편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아내를 주시고 또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성도들과 합정동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내용 목차

서론 ····· 5
1장: 번제 ····· 7
2장: 소제 ····· 13
3장: 화목제 ····· 18
4장: 속죄제 ····· 22
5장: 속건제(贖愆祭) ····· 28
6장: 번제, 소제, 속죄제의 규례 ····· 33
7장: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 ····· 38
8장: 제사장 임직식 ····· 44
9장: 제사장 직무를 시작함 ····· 49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 53
11장: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 57
12장: 자녀 출산 후 정결법 ····· 62
13장: 나병에 관한 법 ····· 66
14장: 나병환자의 정결법 ····· 71
15장: 유출병에 관한 법 ····· 77
16장: 속죄일 ····· 82
17장: 피를 먹지 말 것 ····· 87
18장: 성 도덕에 관한 법 ····· 91
19장: 여러 가지 법들 ····· 95
20장: 율법을 어긴 벌 ····· 113
21장: 제사장에 대한 법 ····· 118
22장: 깨끗한 제사장, 깨끗한 제물 ····· 122
23장: 절기들 ····· 127
24장: 등대, 떡상, 하나님을 훼방하는 죄 ····· 136
25장: 안식년과 희년 ····· 140
26장, 복과 화 ····· 149
27장: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 155

서론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와이크라 **וַיִּקְרָא**('또 그가 부르셨다')이다. 레위기(Leviticus)라는 명칭은 헬라어 70인역에서 왔다. 레위기의 **주요 내용**은 제사 제도와 거룩의 법이며, 한 **특징적 진리**는 거룩이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며,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의 법에 대한 내용이다. 출애굽기는 성막과 여섯 가지 거룩한 기구들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레위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행해야 할 다섯 가지 제사들에 대한 규례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열 가지 절기들에 대한 규례들, 깨끗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에 대한 규례, 성 도덕에 관한 법, 복과 화에 대한 말씀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레위기는 **다섯 가지 제사들**에 대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 제사들은 영적 의미를 가진다. (1)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속죄사역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도 교훈한다. (2)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교훈한다고 본다. (3)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화목의 사역과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과 교제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본다. (4)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상징한다. (5)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상징하며 특히 그것이 우리의 죗값을 보상하는 것임을 보인다.

레위기는 또 **열 가지 절기들**에 대한 규례들도 기록하고 있다. 그 열 가지 절기들도 영적 의미를 가진다. (1) 안식일은 우리의 육신의 안식의 필요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과 미래의 완전한 안식을 예표하며 또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의 날이 필요함을 보인다. (2) 월삭(매월 첫째 날; 초승달이 보일 때 선포하는)은 모든 시간

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인다. (3)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다. (4) 보리 초실절[보리 추수; 무교절 주간에 안식일 다음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5) 맥추절(밀 초실절[밀 추수], 칠칠절, 오순절)은 성도들의 중생을 상징한다. (6) 나팔절(7월 월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알리는 뜻이 있어 보인다. (7)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상징한다. (8) 수장절(초막절; 곡식, 포도주와 기름, 열매들을 창고에 저장함)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난 후 천국에 들어감을 상징한다. (9) 안식년은 성도의 완전한 안식을 상징한다. (10) 희년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만물의 회복을 상징한다.

*주간 안식일이 외에 연중 절기 안식일들은 무교절 2번, 맥추절 1번, 나팔절 1번, 속죄일 1번, 초막절 2번, 모두 합하여 7번이다.

본문 혹은 각주에 자주 사용된 약어

KJV	영어 King James Version
NASB	영어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IV	영어 New International Version
LXX	고대 헬라어 70인역
Syr	고대 수리아어역
It	고대 라틴어역
Vg	고대 라틴어 Vulgate역
BDB	Brown-Driver-Briggs, *Hebrew Lexicon of the O. T.*
KB	Koehler-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angenscheidt	*Langenscheidt Pocket Hebrew Dictionary.*
NBD	*The New Bible Dictionary.* IVP.
Poole	Matthew Poole,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JFB	Jamieson-Faussett-Brown, *A Commentary.*
Harrison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 T.*

1장: 번제

〔1-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회막(會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이었다.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오늘날 성경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과 제사에 대해 명하시기를, 가축 곧 소나 양이나 염소로 예물(코르반 קָרְבָּן)을 삼아 드리라고 하셨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다. 제사와 예물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속죄사역을 예표하는 뜻이 있다. 제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사역을 상징한다. 둘째는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방법을 교훈하는 뜻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기본적 의무이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듯이,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燔祭 burnt offering; 올라 עֹלָה)**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받아지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번제에 대해 명하셨다. 번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사이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번제이었을 것이다(창 4:4). 또 노아는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창 8:20).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예표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엡 5:2).

하나님께서는 먼저 소의 번제에 대해 명하셨다. 제사 드리는 자는 흠 없는 수소를 회막 문에서 드려야 했다. '흠 없는 수컷'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豫表)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분이시다(고후 5:21; 히 4:15). 죄인은 자기의 죗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다. 오직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들의 죄책(罪責)의 전가(轉嫁) 즉 죄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것을 상징한다. 죽어야 할 자는 제물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제물은 그 사람의 죄를 지고 그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속죄의 원리이다. 이와 같이, 번제의 기본적 의미는 속죄이다. 구약시대 제사들의 기본적인 의미는 속죄이다. 레위기에는 '속죄'라는 원어(킵페르 כִּפֶּר)가 47회나 사용되었다. 속죄의 개념은 대리적 형벌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다. 죄인은 죄 문제의 해결인 속죄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사야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29,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물론, 번제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교훈하기도 한다고 본다(롬 12:1).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죽일]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죽이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번제단 사면에 뿌려야 하였다. 본장에서 '그는'(4, 5, 6, 9절)은 제사 드리는 자를 가리킨다(한글개역 9절에서 '그는'이 생략됨). 제사 드리는 자는 자기가 드릴 제물을 자신이 직접 죽여야 했다. 제사 드리는 자는, 이 일을 통하여, 죗값은 죽음이며 짐승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피를 회막 문앞의 번제단 사면에 뿌려야 했다. 피는 생명이며 피흘림은 죽음을 상징한다. 죗값은 죽음이며 제물의 피흘림은 속죄를 상징하였다. 레위기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贖)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려졌다(마 26:28).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져야 했다. '단 사면에'라는 원어(알 함미즈베아크 사비브 עַל־הַמִּזְבֵּחַ סָבִיב)는 '번제단 위 사방에'라는 뜻일 것이다(KJV). '뿌린다'는 원어(자라크 זָרַק)는 '듬뿍, 풍부하게 뿌린다'는 뜻이다. 헬라어 70인역은 '붓는다'는 말(프로스케오 προσχέω)로 번역하였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양손과 양발, 머리와 옆구리에서 피를 줄줄 흘리셨을 것이다. 성막의 기구들은, 위에서 본다면, 십자가 모양이며 그것의 밑부분은 번제단이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십자가 밑에, 곧 번제단 위 사방에 듬뿍 뿌려질 것이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뜰**[낼] **것이요.**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어야 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것을 말한다. 가죽을 벗

기는 것은 주 예수께서 겉옷과 속옷까지 벗김 받으실 것을 예표한 것 같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옷 벗김을 당한 채 수치스런 죽음을 죽으셨고 또 온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받으셨다.

〔7-8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조]**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불은 지옥 형벌을 상징할 것이다. 죗값은 죽음이요 지옥의 형벌을 포함한다. 죄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으나,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 대신, 속죄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한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고난과 죽음 정도가 아니고, 죄인을 대신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었다. 그것은 지옥 형벌의 잔이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순교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위로조차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여섯 시간의 극심한 고통은 택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당하신 지옥 형벌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9절〕 [그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레아크 니코아크 רֵיחַ־נִיחוֹחַ)[유화(宥和)의 향기](NASB, BDB, KB)**니라.**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이 번제의 특징이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분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먹기도 하지만, 번제는 제물 전부를 불태워 드려야 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다. 그의 죽음은 번제이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과, 물과 피와 생명을 우리를 위

해 내어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이 되었다. 여기에 기독교의 중심이 있다. 죄인을 위해 속죄제물이 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救贖)과 의와 거룩과 생명이 되셨다.

번제물은 '여호와께 유화(宥和)의 향기' 즉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향기가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충성되고 향기로운 사역이셨다.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10-13절〕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죽일]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조]**각을 뜨고** [내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 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그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火祭)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유화(속죄)의 향기]**니라.**

본문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다. 규정은 소의 번제와 같다. 단지, 짐승을 죽이는 곳이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되었다. 그것은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었을 것이다.

〔14-17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는] **멱통**[멀떠구니, 먹이 주머니]**과 그 더러운 것**[아마 '그 깃털들']1)**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

1) '그 더러운 것'이라는 원어(노차 נוֹצָה)는 '그 더러운 것들, 그 내용물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Targ, Syr, RV, NIV, 게세니우스, 카일), '그 깃털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BDB, KB, LXX, Vg, KJV, NASB).

화제(火祭)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유화(宥和)의 향기]**니라.**

본문은 새의 번제, 즉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규정이다(레 5:7; 12:8). 새의 번제물은, 제사장이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려야 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번제는,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였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피 흘리신 죽음은 우리에게 속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번제의 특징은 제물 전체를 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주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로마서 12:1,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생명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셋째로,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화 곧 속죄의 제물이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에베소서 5:2,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헌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빌립보서 4:18,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

2장: 소제

〔1절〕 누구든지 소제(素祭)[곡식 제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위기 2장은 소제(素祭 grain offering; 민카 מִנְחָה)에 대한 규정이다. '소'(素)라는 말은 '채식'이라는 뜻이 있다. '소제'는 '곡식제사'라는 뜻이다. '고운 가루'(솔렛 סֹלֶת fine flour)는 자신을 부정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인격을 상징하였다고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기름은 성경에서 빈번히 사용된 대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셨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신[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伸冤)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리라"고 하였다(사 61:1-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성경구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다(눅 4:16-21).

소제의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향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인격과 온전한 순종의 사역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였다. 소제는 그것을 상징하였다고 보인다.

뒤에 레위기 5:11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로 속죄제물을

삼게 하실 때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두지 않게 하셨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 대리 형벌과 저주의 죽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의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고 아름다운 인격과 삶을 상징하며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제에 기름과 유향을 두어 좋은 냄새를 내게 하셨다고 본다.

〔2-3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레아크 니코아크 רֵיחַ־נִיחוֹחַ)[(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화(宥和)의 향기'(soothing aroma)(BDB, KB, NASB) **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 드리는 자는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온다. 2절을 다시 번역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그는[그 제사 드리는 자는]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념물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火祭)라. 여호와께 유화(宥和)의 향기니라"(MT, KJV, NASB). 소제물은, 번제물과 달리, 제물의 일부인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만 취해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랐다. 그러나 그것은, 번제물같이, '유화(宥和)의 향기'이다. 소제물의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렸다.

〔4-7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燔鐵)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솥(마르케쉣 מַרְחֶשֶׁת)[삶는 솥(BDB, Langenscheidt, NIV) 혹은 프라이팬(LXX, KJV, KB)]**에** 삶은[혹은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사람은 화덕에 구운 것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수 있었다. 그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누룩을 넣지 않고 얇게 만든 떡)으로 드리는 것이다. 또 사람은 번철(燔鐵)에 부친 것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다.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또 사람은 솥에 삶은 것 혹은 프라이팬에 구운 것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다.

〔8-10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레아크 니코아크 רֵיחַ־נִיחֹחַ)[유화의 향기]**니라.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8-9절을 다시 번역하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때,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지니"(원문; KJV, NASB도 비슷함).

〔11-12절〕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유화의 향기]**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고 또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게 하셨다. 누룩이나 꿀은 처음 익은 열매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유화의 향기로는 제단에 올리지 말아야 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성을 상징하며 꿀은 육신적 쾌락을 상징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고 자신을 위한 육신적 즐거움을 구하지 않으셨다. 그는 거룩한 생애를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한다.

〔13절〕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맛과 부패방지를 상징한다고 본다. 음식은 적당히 소금을 쳐야 맛이 나며, 소금은 또 썩는 것을 막는 것이다. 소금이 뿌려질 때 소제는 온전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다. 민수기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擧祭, 드는 제물)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應食)[몫]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생애와 속죄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소제물과 같았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

〔14-16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찧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찧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첫 이삭의 소제는 볶아서 찧는 것 외에는 다른 소제 규례와 같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소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였다고 본다. 예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인격이셨다. 그의 온전한 순종의 생활과 죽음은 하나님 앞에 유화(宥和)의 향기가 되셨다. 그는 우리의 많은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던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이 되었다. 로마서 5:18-19,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定罪)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유화(宥和) 즉 속죄의 향기가 되셨다(2, 9절).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만과 죄와 세상 사랑과 육신의 즐거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1-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 . .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 . .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한일서 2:15-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그를 본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로마서 6:12-13,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16-18,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화는 온전한 순종함이다.

3장: 화목제

〔1-2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和睦祭)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죽일]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3장은 화목제(和睦祭; 제바크 쉘라밈 זֶבַח שְׁלָמִים)에 대한 규정이다.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린다. 먼저, 사람이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가져온 본인이 회막 문에서 그것을 죽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려야 했다.

번제와 달리, 화목제에서는 제물을 수컷이나 암컷을 다 쓸 수 있었다. 그것은, 화목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 동시에, 화목의 효력에 제사 드리는 남녀 모두가 참여함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轉嫁)하는 뜻이 있고 그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속죄는 대리적 형벌,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짐승이 받는 것을 뜻한다. 화목제도 일차적으로는 속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화목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근거한다. 속죄의 성경적 의미는 화목을 포함한다.

〔3-5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火祭)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火祭)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유화(宥和)의 향기]**니라.**

제사 드리는 자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해야 했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라 여호와께 화제(火祭)로 드려야 했다. 이것은 여호와께 유화(宥和)의 향기이다.

기름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교만을 상징하는 것 같다. 사람의 복부 속에 좌우에 두 개가 있는 콩팥(신장)은 길이 10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의 완두콩 모양의 작은 기관인데 그 속에는 각각 100만개의 작은 신장단위가 있어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주어 피를 깨끗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 중에서 모든 기름들과 두 개의 콩팥을 화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속의 교만과, 노폐물 같은 죄성을 깨끗케 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 같다.

또 화목제도 번제나 소제처럼 하나님께 유화(宥和)의 향기 곧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향기(soothing aroma)(NASB)라는 속죄적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화목제도 일차적으로는 속죄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것은 특히 하나님과의 화목 즉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상징한다고 본다.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6-1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죽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火祭)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꼬리뼈]**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火祭)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음식]**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죽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火祭)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火祭)로 드리는 식물[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유화(宥和)의 향기]**라.**

양이나 염소로 화목제를 드릴 때도 비슷하다. 양의 경우에, 화제의 내용물로 양의 꼬리뼈에서 벤 기름진 꼬리를 언급했다. 또 화목제의 화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표현되었다(11, 16절). 그것은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를 상징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들과 다른 이들도 그것의 나머지 부분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레 7:15-17).

〔16-17절〕 . . .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모든 기름을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다. 기름은 가장 맛있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이 규정은 오늘날 의학적 지식으로는 건강상에도 매우 좋다. 동물성 기름이 사람의 혈관 내벽에 불순물을 끼게 만들며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나 뇌졸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오늘날 많이 알려진 상식이 되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화목제도 일차적으로 속죄의 의미를 가졌고 그 속죄는 '화목'의 의미를 포함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로마서 5:10,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고린도후서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14-16,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儀文, 글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씻음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둘째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상징한다.[2]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불린다(11절). 또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이다(레 7:15-18). 그것은 식탁 교제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렸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으나, 구원 얻은 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전통본문)고 말했다(롬 5:1).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교제 회복의 증거이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은 큰 특권이다.

셋째로, 화목제는 감사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3]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등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교제의 회복을 얻은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다. 시편 50: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시편 116:17,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에베소서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17,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2) J. B. 페인, M. F. 엉거, G. L. 아처, R. K. 해리슨도 그렇게 봄.

3) 칼빈과 W. 게세니우스는 화목제에서 감사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봄.

4장: 속죄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비쉐가가 בִּשְׁגָגָה)[실수로, 부지중에] **범하였으되.**

레위기 4장은 속죄제(캇타스 חַטָּאת)에 대한 규정이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실수로 범했을 때 죄사함을 위해 드려야 하였던 제사이었다. 십계명에 계시된 하나님의 법들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고 죄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실수로 범한 죄와 고의적인 죄는 구별되었다. 고의적인 죄는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민 15:30; 출 21:14), 실수로 범한 죄는 속죄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

〔3-4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함마쉬아크 הַמָּשִׁיחַ)[기름 바름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얼**(아쉬마 אַשְׁמָה)[죄책(罪責)=죄의 책임]**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죽일] **것이요.**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에 따라 속죄제는 네 경우가 있다. 첫째는 제사장의 경우이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은 수송아지이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을 가리킨다고 본다.[4] 원문에는 '기름 붓는다'(pour)는 말(야차크 יָצַק)과 '기름 바른다'(anoint, smear)는 말(마솨크 מָשַׁח)이 구별되게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본문은 원문에 '기름 바른(마쉬아크 מָשִׁיחַ)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다. 대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보인다(출 29:5, 7; 레

4) 카일-델리취, 매튜 풀, 박윤선 박사 등은 대제사장으로 보지만 본문의 뜻은 일반 제사장인 것 같다.

8:12; 21:10). 출애굽기 29:5, 7, "[아론에게]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야차크 יָצַק)." 일반 제사장들은 단지 기름 바름을 받았다. 출애굽기 40:14-15,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 . .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바름](마솨크 מָשַׁח)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발라서](마솨크)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바름](마솨크)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기름 바른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는 자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매우 큰 죄로 간주되었다. 제사 집례자가 범죄하면 그의 제사가 흠결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기름 부음[바름]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책을 입게 하였으면"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백성이 죄의 책임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범죄는 매우 큰 죄이며 그는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야 하였고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죽여야 했다. 흠 없는 수송아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轉嫁)시키는 뜻이 있었다. 또 그는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죽여야 하였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범죄한 사람 대신 제물이 죽임을 당했다.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은 제사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나타낸다. 성경적 속죄 개념은 죄인의 죄에 대한 대리적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셨다.

〔5-12절〕 기름 부음[바름]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

며 또 그 속죄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기름 바름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야 했다. 족장의 범죄나 평민의 범죄에 대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지 않았지만(25, 30, 34절), 제사장의 범죄나 온 회중의 범죄에 대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회막의 성소에 들어가야 했다. 그것은 그 죄의 무게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회막에 들어간 제사장은 그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지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했다. 피를 일곱 번 뿌리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상징한다. 또 그는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발라야 했다. 이것은 중보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올려진다는 뜻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였고 그의 중보 기도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받아지게 하였다.

제사장은 회막에서 나와 그 제물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다 쏟으셨다. 제사장은 또 그 속죄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물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해야 했고, 그는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했다. 그것은 그의 교만과 죄성을 회개함을 상징할 것이다.

또 그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

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로 나무 위에 살라야 했다.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은 성소로부터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떨어진 형벌의 장소 곧 지옥을 예표했을 것이다(안드류 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13-21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죽일] **것이요 기름 부음**[바름]**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둘째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다. 그 규례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했다. 20절은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贖罪)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제사는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얻는 방법이었다.

〔22-26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실수로]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셋째로,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 없는 숫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야 하였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다. 이 속죄제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지 않고 회막 밖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속죄제이었다. 그러나 속죄의 효력은 동일하였다.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27-31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燔祭所)[번제단 옆에서]**에서 잡을**[죽일]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유화(속죄)의 향기가 되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넷째로,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흠 없는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다. 그 규례는 족장의 속죄제와 동일하였다.

〔32-35절〕 그가 만일 어린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죽이는] **곳에서 잡아**[죽여]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양의 기름을 취한 것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어린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면 흠 없는 암컷을 드릴 수 있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죄는 속죄를 통해서만 사해질 수 있다. 죄는 개인과 인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죄에는 경중(輕重)이 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그러나 모든 죄

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만 사해질 수 있다. 제사장이 속죄한 즉 사함을 얻는다(20, 31, 3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고 직분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였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는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했다. 그것은 완전한 속죄를 상징했다고 본다.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은 완전했다. 다니엘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永贖)되며."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10, 14,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ἡγιασμένοι 완료시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τετελείωκεν 완료시제)."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중보사역은 효력이 있다. 속죄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그 피를 분향단 뿔에 발랐고 또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속죄제물의 피는 번제단 뿔에 발랐다.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상징했고 그 뿔은 그 효력을 상징했고 번제단의 뿔도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효력을 상징했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과 중보사역은 택자들에게 효력이 있다. 로마서 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 . .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24-25,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5장: 속건제(贖愆祭)

레위기 5:13까지를 속죄제에 대한 규정의 계속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A. 보나, 카일-델리취, E. J. 영, R. K. 해리슨, G. 아처, 박윤선), 5:1-6:7을 속건제에 대한 규정으로 보기도 한다(NASB, NKJV). 5:6, 7은 속건제를 언급한다. '속건제'라는 원어(아솸 אָשָׁם)는 '죄책'(guilt) 즉 죄에 대한 법적 책임 곧 죗값이라는 뜻이다. '건'(愆)이라는 한자는 '허물'이라는 뜻이다.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속죄의 뜻을 나타내지만, 속죄제보다 죗값과 보상(報償)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 같다.

〔1-6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생각 없이]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레위기 5장과 6:1-7에 의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모두 여섯 가지 경우라고 본다. 첫째는, 증언을 회피한 경우이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세상에서는 묵비권이 통용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성도는 들은 것과 본 것과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둘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死體)나 부정한 가축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알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접촉했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헛맹세를 했을 경우이다. 누구든지 무심중에 즉 생각 없이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범죄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 제물은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이었다. 6절에 이것을 '속죄제'라고도 말한 것을 보면 속건제나 속죄제는 그 의미상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경우는 평민의 속죄제와 비슷하였다(레 4:27-35).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해야 했다.

〔7-10절〕 만일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속건제물로](원문, NASB)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못하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속건제물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했다.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11-13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

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죄를 인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와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다. 1에바는, 약 40리터라는 견해도 있으나(요세푸스, BDB), 보통 약 22리터로 본다(NBD). 그러면 에바 10분의 1은 약 2.2리터이다. 이것은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을 붓지 않고 유향도 놓지 말아야 했다. 속죄제는 소제와 달리 죄의 형벌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의 한 움큼을 기념물로 취해 번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속죄제이었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14-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실수로]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숫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넷째 경우는, 성물에 대하여 실수로 잘못을 범했을 때이다. 그것은 오늘날 각종 헌금이나 교회의 거룩한 물건들에 관계될 것이다. 누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실수로 범과하면 지정한 가치를 따라 몇 세겔 은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서 그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17-19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다섯째 경우는, 하나님의 금하신 계명을 범하는 경우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전반에 관한 것일 것이다. 범죄한 자는 지정한 가치대로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의 실수로 범한 허물을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6: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勒捧)**[강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강탈]**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속건제를 드리는 날에](KJV, NASB, NIV)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6:1-7은 속건제에 대한 규정의 계속이다. 히브리어 성경은 한글성경 6:8부터가 6:1이다. 속건제의 여섯 번째 경우는, 거짓 증거나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강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해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이며 그는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며,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즉 그가 '속건제를 드리는 날에'(KJV, NASB, NIV)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또 그는 지정된 가치대로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와야 하였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을 것이다.

속건제 규정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죄는 죄책이 있으며 속죄는 그 죄책의 보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우리의 죄책을 보상하신 것, 즉 죗값을 지불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19-20에서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사신 바된 몸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6에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贖錢)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증거될 것이었느니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는 우리의 죄벌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무거운 죗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형벌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6:20,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의 도구로 사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순종하여 의와 선만 행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증언이 필요할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세례 서약이나 결혼 서약이나 임직 서약에서 진실해야 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죄뿐이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만 행해야 한다.

6장: 번제, 소제, 속죄제의 규례

〔8-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 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지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할 제사의 추가적 규례에 대해 말씀하셨다. 첫째로, 그는 번제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셨다.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계속 붙도록 할 것이며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붙어 있고 꺼지지 않게 해야 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르며 불이 단 위에 붙어 있고 꺼지지 않게 해야 했다.

번제단의 불은 제물을 태우는 용도로 계속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항상 붙어 있고 꺼지지 말게 하라고 명하셨다. 9절,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계속 붙게] 할 것이요." 12절,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단의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번제단의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한 지옥의 불을 상징한다고 본다. 지옥은 불못이며 영원

한 형벌의 장소이다. 우리는 그 지옥의 불을 두려워해야 한다.

〔14-18절〕 소제[곡물제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레아크 니코아크 רֵיחַ נִיחֹחַ)[유화(宥和, 속죄)의 향기]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火祭)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소제[곡물제사]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셨다. 제사장은 소제를 번제단 앞 곧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유화(속죄)의 향기가 되게 해야 했다. 소제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인 회막 뜰에서 먹어야 했다. 그들은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아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화제(火祭) 즉 불태워 드리는 제물 중에서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신 것이다. 소제는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들이 이것을 먹어야 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할 것이다.

소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된다(17절).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룩한 제물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들이 소제의 남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할 것이다. 소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의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순종과 의를 받으실 것이다.

〔19-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바름]**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레아크 니코아크 נִיחֹחַ רֵיחַ)[유화의 향기]**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바름]**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바름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소제, 즉 제사장 임직식 소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즉 약 2.2리터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유화(속죄)의 향기가 되게 하는 것인데,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된 자가 드릴 것이며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살라 드려야 하였다.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했다. 백성이 드린 소제물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으시는 뜻으로 먹지만, 자신이 드리는 소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뜻으로 온전히 불사르는 것일 것이다.

〔24-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죽이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죽일]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뿌려졌으면] **묻은**[뿌려진]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질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鍮器)**[청동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죄제 제물의 규례에 대해 고하도록 말씀하셨다.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는,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므로 여호와 앞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죽일 것이며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또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것의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야 했다.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므로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어야 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즉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레 4:1-21)의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했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를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할 것이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남은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나 자신이 포함되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했다. 그것은 그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지 않고 사람들의 입장에만 서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했다. 번제단의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의 불을 상징할 것이다. 지옥은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의 형벌의 장소이다. 마태복음 25:41,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탄다. 마가복음 9: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9:45,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

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전통본문)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9: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의](전통본문)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9:48,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전통본문은 44, 46절에도 있음).

마태복음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5:46, "저희는 영벌(永罰)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영원한 지옥 불못을 두려워해야 한다.

둘째로, 구약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상징한다. 번제는 그의 온전한 헌신과 속죄, 소제는 그의 온전한 순종과 의, 속죄제는 그의 대속 사역을 상징한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의를 받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의와 선만 행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그 생명과 끊어지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된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과 의와 선만 힘써 행해야 한다.

7장: 속건제와 화목제의 추가적 규례

〔1-7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죽이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죽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고기]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첫째로, 속건제의 추가적 규례이다.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므로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제물을 죽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며 그 모든 기름과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등을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불태워 드려야 했다.

그 피를 단에 뿌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다. 속건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였다. 또 그 모든 기름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인데, 사람의 교만을 상징한 듯하다. 또 콩팥은 몸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기관으로서 죄악된 요소를 상징한 것 같다. 우리의 교만과 죄악된 요소들은 다 불태워져야 한다. 또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므로 제사장의 남자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그것은 속죄제의 규례와 동일하다. 제사장이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8-10절〕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솥에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얻을 것이며 소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 소제물을 얻어 모든 형제들과 함께 균등하게 나누어야 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대우하는 뜻도 있었다고 본다.

〔11-14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누룩 없는 떡]**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누룩 넣은 떡]**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擧祭)**[드는 제물][5]**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둘째로, 화목제의 규례이다.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감사의 화목제이며, 둘째는 서원의 화목제이고, 셋째는 자원의 화목제이다. 화목제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을 상징하는 제사이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요소들로서 감사와 서원과 자원을 말씀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감사의 화목제는 화목제물과 함께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도 함께 드려야 했다. 유교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여전히 부족한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도 여전히 부족과 연약이 많은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치 말고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화목제의 예물들은 그 전체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擧祭)로 드리고 그 드린 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했다.

---

5) '거제'(擧祭, heave-offering)(KJV)라는 원어(테루마 תְּרוּמָה)는 '헌물'이라는 뜻으로 일반 명사로 번역되기도 한다(BDB, NASB, NIV).

〔15-18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가]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 드린 그 날에 먹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했다. 우리의 감사는 보통 하루에 제한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은 제사 드린 날에도 먹지만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었다. 단지 그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라야 했다. 만일 그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사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과 가지는 우리의 교제는 경건함과 두려움, 진실함과 진지함을 가진 교제이어야 한다.

〔19-21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화목제물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했고 또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어야 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몸이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자만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죄사함 받은 성도들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상징한 것 같다.

〔22-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추가하셨다. 첫째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먹는 것 외에는 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기름을 생활의 여러 용도로 쓰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아야 했다. 특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기름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했다.

둘째는, 그들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였다. 그것은 오직 대속(代贖)의 상징으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했다.

〔28-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搖祭)**(테누파 תְּנוּפָה) (wave-offering)[흔들어 드리는 제물]**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쇼크 שׁוֹק)[앞넓적다리](KJV-'shoulder'; 민 6:19, '어깨'; 신 18:3, '앞넓적다리'[제로아 זְרֹעַ; KJV, NASB-'shoulder']와 동의어)**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擧祭, 테루마 תְּרוּמָה)**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앞넓적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앞넓적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바른]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화목제물에서 제물의 가슴과 우편 앞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으로 주어야 할 것을 명하셨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搖祭)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살라야 했다. 요제는 번제단을 향하여 전후로 흔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다시 받는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런 다음 그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졌다. 또 제사 드리는 자는 화목제물의 우편 앞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KJV) 혹은 '헌물'(NASB)로 삼게 했고 그 우편 앞넓적다리는 화목제의 피와 기름을 드린 제사장의 소득이 되었다. 이와 같이, 화목제물의 가슴과 우편 앞넓적다리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바름을 받은 날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34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36절),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36절)이 되었다.

〔37-38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법]**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레위기의 이 제사 규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이었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구체적 시점에 구체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이다. 우리는 이 책을 두려움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며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실천해야 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제사장은 속건제물과 화목제물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을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야 했다. 제물의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민 18:29,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또한 사람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 같다. 또 콩팥은 사람의 더러운 죄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죄성의 찌꺼기들을 다 회개하고 버려야 한다.

둘째로, 화목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상징하는 뜻도 있었다고 본다.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깨끗한 자들만 먹을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먼저 죄씻음을 받고 평소에 성결한 생활을 힘써야 함을 보인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람의 매우 큰 특권이며 행복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의 가죽, 소제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의 고기, 감사의 화목제물 중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및 유교병의 각각 한 개씩, 또 화목제물 짐승의 가슴, 우편 앞넓적다리 등을 제사장들에게 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으로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들을 대우하시는 뜻도 있어 보인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과 교회의 봉사자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야 할 것이다(살전 5:12-13).

8장: 제사장 임직식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灌油)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본장은 제사장 임직식의 내용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회중을 모으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6]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또 겉옷[7]을 입히며 에봇(조끼 같은 것)을 더하고 에봇의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8]을 넣고 또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앞면에 금패를 붙였다. 그 관은 거룩한 관이다.

〔10-13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물대야]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는 관유를 취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단에 일곱 번 뿌리고 단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물대야와 그 받

---

6) 쿳토넷 כְּתֹנֶת--일상적으로 입는 옷(BDB), 'tunic'(BDB, NASB, NIV).

7) 메일 מְעִיל--겉옷(BDB), 'robe'(BDB, NASB, NIV).

8) 우림(אוּרִים)은 '빛'이라는 뜻이고, 툼밈(תֻּמִּים)은 '완전'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어떤 도구이었다.

침에 발라 거룩하게 했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

'붓는다'(pour)는 말(야차크 יָצַק)은 아론에게만 사용되었다고 본다.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관유를 머리에 붓고 바르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상징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神性)의 충만함을 가지셨다. 골로새서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이시다. 관유와 피로 그에게 뿌리고 그의 옷에도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위들이 지극히 거룩하심을 상징한다. 히브리서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14-17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그는 그것을 죽이고 모세는 그 피를 취하여](KJV; 원문의 분리액센트대로)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는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왔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였고 그 수송아지를 죽였고 모세는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贖)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또 그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18-21절〕 또 번제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

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그는 그것을 죽이고 모세는]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는] **그 숫양의** [조]**각을 뜨고**[내고] [모세는]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그는]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모세는] **그 숫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유화의 향기]**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번제의 숫양을 드릴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였다. 원문에는 19-21절에서 매 절마다 앞부분은 '그가'라고 시작되고 뒷부분은 '모세가'라고 시작된다(KJV). '그가'는 아론을 가리켰다고 본다. 그렇다면, 아론은 그 숫양을 죽였고 모세는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렸으며, 아론은 그 숫양의 조각을 내었고 모세는 그것의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불살랐고, 아론은 물로 그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었고 모세는 그 숫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살랐다. 이것은 유화(속죄)의 향기를 위해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었다.

〔22-29절〕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그는 그것을 죽이고 모세는]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귓불]**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부리**[귓불]**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쇼크 שׁוֹק)[앞넓적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搖祭)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유화의 향기]**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모세는 또]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숫양의 모세의 응식**[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다른 숫양 곧 임직식 숫양을 드릴 때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였다. 원문에는 23절도 앞절들과 같은 구조이

다. 아론은 그 숫양을 죽였고 모세는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발랐으며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렸다. 또 그는 그 기름과 두 콩팥과 우편 앞넓적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의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앞넓적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搖祭)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 번제물 위에 불살랐다. 이것은 유화(宥和, 속죄)의 향기를 위하여 드리는 임직식 제사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火祭)이었다. 또 모세는 임직식 숫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搖祭)를 삼았다. 이것은 모세의 몫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다.

〔30-36절〕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 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지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 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모세는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임직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 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사를 것이며 임직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말하였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본장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순종하였음을 강조한다(4, 9, 13, 17, 21, 29, 36절). 4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모세와 아론의 순종은 오늘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순종의 본이 된다. 주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마 28:20), 또 사도 바울은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遺傳)을 지키라"고 말했다(살후 2:15). 우리는 신구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다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모세가 임직식 숫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 것은 그들의 몸의 모든 기관들을 거룩하게 하는 뜻이 있었다. 제사장들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어야 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모형도 된다. 신약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벧전 2:9).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은 범사에 듣는 것과 말하고 행하는 바를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귀와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셋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임직식의 제물인 숫양의 고기를 삶아서 광주리의 떡과 함께 먹어야 했다. 임직식 숫양은 일종의 화목제이었다.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먹는 제사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를 상징하였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한(롬 5:1)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놀라운 특권이며 복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힘써야 한다.

9장: 제사장 직무를 시작함

본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 일을 증거한다.

〔1-4절〕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 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 없는 숫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숫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양의 1년 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7일간 임직식을 한 후 제8일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고 아론에게 속죄제의 송아지와 번제의 숫양을 드리라고 말했고, 또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제의 숫염소와 번제의 송아지와 어린양과 화목제의 수소와 숫양과 소제를 가져오게 하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가리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代贖)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救贖)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했다(벧전 1:18-19).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부차적으로 온전한 헌신과 교제와 감사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교훈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한 순종을 바쳐야 한다.

〔5-7절〕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

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은 여호와 앞에 섰다. 모세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본문은 아론이 처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이었고 그가 모세의 명 곧 여호와의 명대로 그 일을 다 수행했다고 말한다. 모세의 명은 여호와의 명이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져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진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신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의 생활 규칙은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분명한 뜻이다.

〔8-14절〕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죽이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으매[죽이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아론은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15-21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죽여]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숫양을

잡으매[죽이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쇼크 שׁוֹק)[앞넓적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22-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의 말대로(4, 6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는 불의 응답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그는 때때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러한 나타나심들을 증거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을 특별계시라고 부른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들의 기록이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방법은 바뀌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신약성경이 다 기록된 사도 시대 이후 그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 또 그것과 함께 활동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활동하시지만, 주로 성경을 통해 일하신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 또 그 말씀과 더불어 활동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사역을 사모한다. 우리는 오늘날도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사모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감사함과 온전한 순종을 교훈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불경건하게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속죄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과 교제와 감사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모든 신약 성도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교훈하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였다(벧후 3:11-13, 14).

둘째로, 아론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며, 교회의 봉사의 일도 성경대로 해야 한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치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교훈하였고(신 4:1-2; 5:32-33),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신 10:12-13).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교훈의 책이며(딤후 3:16-17), 또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하며(마 28:20), 또 굳게 서서 사도들의 교훈도 지켜야 한다(살후 2:15). 우리는 신구약성경의 교훈대로 믿고 행해야 한다.

셋째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또 성경과 더불어 활동하신다. 우리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역을 사모한다.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단, 즉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단에 내면적 불로 응답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성을 태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특히 심신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1-5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에쉬 자라 אֵשׁ זָרָה)[이상한 불](KJV, NASB, BDB)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삼촌]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아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아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기록한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생긴 일인 것 같다. 제사장들은 저녁과 아침에 회막의 등불을 켤 때와 정리할 때 향로에 불을 담아(민 16:18)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했다(출 30:7-9).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항상 간수되었던(레 6:9, 12, 13) 번제단의 불을 사용했을 것이다(레 16:12; 민 16:46). 그 불은 영원한 지옥 불을 상징하는 속죄의 불이었다고 본다. 그 불 외에 다른 불로 향을 살라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이상한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다.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즉시 죽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회막 혹은 성소 앞에서라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

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은 잠잠했다. 모세는 아론의 삼촌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죽은 자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나가게 하였다.

〔6-11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들의 죽음을 일반 사람들처럼 애도해서는 안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아론의 아들 네 명 중 두 명이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스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그와 그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어그러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는 술 취함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12-15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네 응식(應食)[몫, 마땅히 받을 것]**과 네 아들의 응식**[몫]**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쇼크 שׁוֹק)**[앞넓적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네 응식**[몫]**과 네 자손의 응식**[몫]**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앞넓적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

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응식[몫]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제의 남은 것들과 화목제물 중 든 앞넓적다리와 흔든 가슴을 그들의 마땅히 받을 것으로 주셨음을 다시 강조하셨다.

〔16-20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더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힘써 찾았으나(원문) 그것은 이미 불살라졌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라고 말했다. 모세가 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모세의 말대로 그들은 그 속죄제물의 고기를 성소 뜰에서 먹었어야 하였다. 그러나 아론은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겼던 것 같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런저런 일들을 명하셨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어떤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령하셨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는 잘못을 범했다. 하나님께서

는 모세를 통해 그의 뜻을 나타내셨다. 5절, "그들이 나아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7절,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였고 모세의 명대로 옷 입은 채로 진 밖으로 메어냄을 받았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의 명대로 행하였다.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11절,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주셨고 제사장들은 그 규례들을 지켜야 했고 또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가르쳐야 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계시하시고 명하신 대로 그의 모든 명령을 믿고 가르치고 행해야 한다.

둘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담았던 '다른 불'은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불이었다. 그들의 문제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과 그의 거룩한 규례를 따라 섬기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섬기려 한 데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위를 용납지 않으셨고 노하셨고 그들을 분향하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하셨다. 후에, 다윗 왕 때에도 법궤를 다윗 성으로 실어오는 수레를 몰고 오던 중에 소들이 뛴다고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웃사는 즉사했다(삼하 6:6-7).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또 참 믿음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경에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이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교훈에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신 4:2; 계 22:18-19).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즉 성경을 거슬러 혹은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주관적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불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바른 사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순종해야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11장: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솨판 שָׁפָן)[바위 오소리(badger)(BDB, KB, NASB), 토끼 종류(coney)(KJV, NIV)]**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사체]**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 만한 정결한 생물과 먹어서는 안 될 부정(不淨)한 생물을 구별하게 하셨다.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의 구별은 모세 시대보다 천 년 전인 노아 시대에 벌써 있었다(창 7:2; 8:20).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라"고 말씀하셨었다(창 7:2). 땅의 모든 짐승들 중에 사람들이 먹을 만한 생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들이었다. 낙타와 사반(아마, 바위 오소리)과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므로 부정하다고 여겨졌다. 이런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사체(死體)도 만지지 말아야 했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9-12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

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사체]**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강이나 바다나 물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민물고기든지 바다고기든지 물고기 종류들 중에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조기나 민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생선이다. 수중 생물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한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성도들은 그런 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를 가증히 여겨야 했다. 그러면 게, 새우, 조개 종류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 같다.

〔13-19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네쉐르 נֶשֶׁר)[수리](eagle)(KJV, NASB, NIV)**와 솔개**(페레스 פֶּרֶס)[독수리](vulture)(NASB, NIV)**와 어응**(오즈니이야 עָזְנִיָּה)[검은 독수리(KB, NIV, ≒BDB), 말똥가리(buzzard)(NASB)]**과 매**(다아 דָּאָה)[솔개(kite)(NASB), 붉은 솔개(KB, NIV)]**와 매 종류**(아이야 אַיָּה)[송골매(falcon)(BDB, NASB), 검은 솔개(KB, NIV)]**와 까마귀**(raven)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타크마스 תַּחְמָס)[수컷 타조(BDB), 올빼미 종류(NASB, KB)]**와 갈매기**(gull)**와 새매**(hawk) **종류와 올빼미**(코스 כּוֹס)[작은 올빼미](KJV, NASB, NIV)**와 노자**(솰라크 שָׁלָךְ)[가마우지(cormorant), 바다까마귀](BDB, KB, KJV, NASB, NIV)**와 부엉이**(얀슈프 יַנְשׁוּף)[큰 올빼미](KJV, NASB, NIV)**와 따오기**(틴쉐멧 תִּנְשֶׁמֶת)[흰올빼미](KB, NASB, NIV)**와 당아**(카아스 קָאַת)[펠리칸(pelican)(BDB, KJV, NASB), 사막올빼미(NIV)]**와 올응**(라캄 רָחָם)[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carrion-vulture)(BDB, KB, NASB)**과 학**(stork)**과 황새 종류**(아나파 אֲנָפָה)[왜가리](heron)(KJV, KB, NASB, NIV)**와 대승**(두키팟 דּוּכִיפַת)[후투티](hoopoe)(BDB, KB, NASB)**과 박쥐**(bat)**니라.**

새들 중에 가증하여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주로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거나 죽은 사체들을 먹는 맹금류들이다.

〔20-23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아르베 אַרְבֶּה) **종류와 베짱이**(살암 סָלְעָם) **종류와 귀뚜라미**(카르골 חַרְגֹּל) **종류와 팟종이**

(카가브 חָגָב)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단지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었다. 그것들은 메뚜기, 베짱이, 귀뚜라미, 팟종이 등 메뚜기 종류(BDB)이었다.

〔24-26절〕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이런 유는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이것들의 사체(死體)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27-28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사자나 곰이나 늑대 같은 것들일 것이다.

〔29-30절〕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콜레드 חֹלֶד)[족제비(weasel)(BDB, KJV, NIV), 두더지(mole)(NASB, ≒ KB)]**와 쥐**(mouse)**와 도마뱀 종류**(차브 צָב)[큰 도마뱀 종류](BDB, NASB, NIV)**와 합개**(아나카 אַנָקָה)[흰 족제비(ferret)(KJV, BDB), 도마뱀 종류(gecko)(KB, NASB, NIV)]**와 육지 악어**(코아크 כֹּחַ)[카멜리온(chameleon)(KJV), 악어(NASB), 큰 도마뱀(monitor lizard)(NIV)]**와 수궁**(레타아 לְטָאָה)[도마뱀(KJV, NASB), 벽 도마뱀(wall lizard)(NIV)]**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틴솨멧 תִּנְשֶׁמֶת)[카멜리온](chameleon)(BDB, KB, NASB)**이라.**

〔31-40절〕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사체]**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사체]**이 목기(木器)**[나무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

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의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사체]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축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사체]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사체]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사체]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1-43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 즉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은 다 가증하므로 먹지 못하였다. 즉 뱀, 도마뱀, 지네 종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44-47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에는 '거룩'(구별됨이라는 뜻)이라는 말이 약 87회나 나온다.

본장의 법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첫째로, 위생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의학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위생적 이유에서 어떤 생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다. 오늘날 지식에 의

하면, 사반이나 토끼의 피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야토병을 줄 수 있다고 하며, 돼지는 몇 가지 기생충들의 매개체로서 촌충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돼지고기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병으로 선모충병과 주혈원충병 등이 있다고 한다. 또 게나 새우 같은 것들은 썩는 고기를 먹으며 전염병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로,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 법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숭배적 종교의식에서 먹었던 것들을 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뜻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런 의식법들이 다 폐지되었다(골 2:14-17).

셋째로, 상징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땅의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안정적인 초식동물로서 남을 해치지 않고 사납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것 같다.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 사자나 곰이나 늑대 등은 남을 해치며 할퀴는 것들이다. 물고기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의 흐름을 거슬러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쁜 영향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다. 새들 중에도 다른 것을 잡아먹는 새들을 부정하다고 한 것은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함을 상징할 것이다. 까마귀나 쥐나 도마뱀이나 뱀 종류는 다 불결한 것이거나 인류 초기로부터 혐오하는 것들이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혐오물이었다.

요약하면, 이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고 사납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심을 나타낸다.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고(약 1:27) 악한 친구들과의 교제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줄 알고 악한 친구들과의 교제를 삼가야 한다(고전 15:33).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거슬러야 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 자녀 출산 후 정결법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칠일[14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생리]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6-8절〕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된 어린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본장은 여인이 자녀 출산 후 정결케 되는 법을 규정한다. 본장의 내용은 몇 가지 진리를 보인다. **첫째로,** 본장은 인간의 **죄성**(罪性)에 대해 증거한다. 자녀를 출산한 여인은 속죄가 필요한 자로 간주된다. 본문은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깨끗케 되고 딸을 낳으면 14일간(두 주간)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깨끗케 된다고 말한다. 본문은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산모가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회막문의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된다고 말한다.

왜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속죄가 필요한가? 속죄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의 출산 행위가 죄가 된다는 뜻을 내포한다. 자녀 출산이 죄인가? 자녀 출산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출산은 하나님께

서 복 주신 아름다운 일이다. 본문이 출산을 속죄가 필요한 죄악된 일이라고 보는 것은 사람의 원죄 때문에, 즉 출산된 아기가 죄성(罪性)을 가진 죄인으로 출산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매튜 풀은 "그 여자가 불결한 것은, 임신이나 출산에 있는 어떤 불결 때문이 아니고, 출산과 임신 때로부터의 인간 본성의 보편적이고 뿌리깊은 부패성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안드류 보나도 "여인은 아이의 출산으로 불결하게 된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죄인으로 즉 지옥의 상속자로 출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를 낳은 여자는 불결하다고 간주된다"고 말한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죄인이다. 산모가 7일 혹은 14일 동안 부정한 것은 사람의 죄책과 죄성이 많음을 보인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정죄와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이며 그 부패성은 매우 뿌리깊고 심각하여 치료 불가능하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져 있다. 모든 사람은 심히 죄악되다.

둘째로, 본장은 죄인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한다. 어린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다. 제8일에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은 산모와 아이가 다 7일간 부정했기 때문이다. 할례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전제한다. 할례는 언약의 표이었고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표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심으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창 17:9-14). 하나님의 언약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성도가 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의 내면적 뜻은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다. 할례는 죄를 정결케 하는 뜻이 있었다. 그것은 중생(重生)을 상징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을 좇아 중생(重生)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도다"라고 말했다(딛 3:4-6). 구약시대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의미가 같다(골 2:11-12). 할례나 세례는 구원과 언약의 외적인 표에 불과하고, 그것이 상징하는 내면적 은혜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중생(重生)과 죄사함의 구원이다.

셋째로, 본장은 **남녀의 구별**에 대해 증거한다. 본장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 후에 산혈이 깨끗할 것이며 그가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14일간 부정하고 66일 후에 산혈이 깨끗할 것이라고 말한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출산에 차이를 두셨다. 그것은 남녀의 구별을 보인다. 그 구별은 창조 질서에 근거할 뿐 아니라 또한 범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 때부터, 아니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부터 구별되었다. 또 인류의 타락에서, 여자는 남자를 범죄케 하는 자가 되었다(창 3:6).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 3:17).

그러므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구원의 특권을 누리지만,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의 그 역할에 있어서 구별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한다. 에베소서 5:22-24,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11-14, "여자는 일

절 순종함으로 종용히[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목사직)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장로직)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사람은 원죄(原罪)를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중생(重生, 거듭남)의 구원이 필요하다(요 3: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얻고 성경의 모든 교훈을 힘써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가르쳐 믿음과 순종으로 살게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원죄의 죄성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로, 구약 시대의 할례는 중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표이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 곧 마음의 씻음과 새로워짐을 나타낸다. 그것은 신약 시대의 세례와 같다. 사람은 구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롬 10:10).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구원은 죄사함이다. 우리는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었고 이제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즐거이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셋째로, 여인이 출산 후 산혈이 깨끗케 되는 기간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이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구원의 특권을 누리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구별이 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가정의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남자는 자기 역할을 다하고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하고 여자는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역할을 다하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 직분에서도 남녀의 구별을 인식해야 한다.

13장: 나병에 관한 법

본장은 나병에 관한 법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생적 규례이며 아울러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세에스 שְׂאֵת swelling) **딱지**(삽파카스 סַפַּחַת scab)[부스럼]**가 앉거나 색점**(바헤레스 בַּהֶרֶת bright spot)[반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차라아스 צָרַעַת)[나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나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라는 원어(차라아스 צָרַעַת)는 구약성경에서 35회 사용되었고 레위기 13-14장에서 29회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나병'(leprosy)으로 번역되며(BDB, KJV, NASB) 오늘날의 나병(한센병)을 포함하여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용어이었다고 본다. 이 말은 고대의 헬라어 70인역도 '나병'(레프라 λέπρα)으로 번역했다. 나병이 아니고 단순히 피부병이라는 견해(KB, Holladay)는 근거가 약해 보이며 '전염성 피부병'(NIV)이라는 번역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제사장은 피부의 병을 진찰하여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처이며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했다.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질병의 진단을 할 책임도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임을 가졌고 거기에는 의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일도 포함되었다.

〔4-8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격리시킬]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격리시킬] **것이며**

7일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색이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미스파카스 מִסְפַּחַת)[부스럼(scab)(KJV, NASB, BDB), 뾰루지(rash)(NIV)]**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나병]**임이니라.**

〔9-11절〕 **사람에게 문둥병**[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난육(爛肉)**(미크야스 바사르 카이 מִחְיַת בָּשָׂר חַי)[(살갗이 벗겨진)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문둥병**[만성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禁錮)하지는**[격리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흰 점과 흰털과 생살은 나병의 전형적 특징으로 간주되었다.

〔12-17절〕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생살]**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생살]**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나병]**이며 그 난육**[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본문은 활동하는 나병이 아닌 피부병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 14-16절의 '난육'이라는 원어(바사르 카이 בָּשָׂר חַי)도 뜻은 같다.

〔18-23절〕 **피부에 종기**(쉐킨 שְׁחִין boil)**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나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격리시킬]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

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본문은 종기로 인해 생긴 나병에 대해 말하였다.

〔24-28절〕 피부를 불에 데었는데 그 덴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나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나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나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본문은 화상(火傷)으로 생긴 나병에 대해 말하였다.

〔29-37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네세크 נֶתֶק)[비듬(LXX--θραῦσμα, KJV--dry scall), 딱지(scale)(NASB), 옴(itch)(NIV), (나병으로 의심되는) 부스럼(BDB)]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격리시킬]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격리시킬]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본문은 화상으로 생겼거나 머리나 수염에 난 나병에 대해 말한다.

〔38-39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white bright(KJV, NASB), dull white(NIV))[약간 희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러기**(보하크 בֹּהַק)[주근깨(KJV), 습진(LXX--ἀλφός, NASB--eczema), 해가 없는 뾰루지(NIV), 해가 없는 피부 부스럼(BDB)]**라. 그는 정하니라.**

〔40-44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둥병**[나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본문은 대머리나 이마에 생긴 나병에 대해 말하였다.

〔45-46절〕 **문둥**[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머리에 쓴 것을 벗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부정하며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다.

〔47-59절〕 **만일 의복에 문둥병**[나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베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나병](차라아스 마메에레스 צָרַעַת מַמְאֶרֶת)**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아니하였으면]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아니하

였을지라도](NASB, NIV),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본문은 의복에 생긴 나병에 대해 말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나병은 부정하다. 그것은 무서운 병이기 때문이다. 나병은 사람의 죄를 상징한다. 죄는 부정하다. 주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다(마 15:19-20). 죄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다(고후 7:1). 그것은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며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게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다.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한다. 요한일서 1:9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나병환자는 격리되어야 했다. 나병이 전염성을 가진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나병환자는 건강한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다. 죄는 교리적 오류든지 윤리적 오류든지 간에 남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누룩이나(갈 5:9; 고전 5:6) 독한 창질에 비유한다(딤후 2:17).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죄와 분리되어야 하고 죄인들과도 분리되어야 한다. 죄의 전염성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범죄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교훈했다(롬 16:17; 고전 5:11-13; 딛 3:10). 천국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실제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생활을 힘쓰는 자들만 들어가며 믿지 않는 자와 악인들은 영원히 제외될 것이다(고전 6:9-10; 계 21:27; 22:15).

14장: 나병환자의 정결법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문둥**[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나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살아 있는]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죽이게] **하고 다른 새는 산 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죽인] **새 피를 찍어 문둥병**[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살아 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병이 나은 나병환자는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그를 진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결법대로 행해야 했다. 병이 나은 나병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은 단지 위생적 의미뿐 아니라, 영적 의미도 있었다고 본다. 나병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왔다. 그러므로 그 정결 의식은 죄씻음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다. 새 한 마리를 죽여 그 피를 나병환자에게 일곱 번 뿌리고 살아 있는 새를 들에 놓아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고, 백향목은 썩지 않음을,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였다고 본다. 우슬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며 피를 적셔 뿌리기에 편리하였다.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고 죄씻음을 통해 참 평안과 행복이 온다.

〔8-9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는 또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

로 몸을 씻어야 깨끗케 되었고 그 후에 백성의 진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장막 밖에서 또 7일을 거해야 했고 제7일에 그의 모든 털을 다시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깨끗케 되었다. 이렇게 그의 옷을 빨거나 모든 털을 밀거나 몸을 씻는 것을 두 번 하여야 했다. 그것은 위생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결함을 상징하였다.

〔10-14절〕 제8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양 둘과 1년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죽이는] 곳에서 잡을[죽일]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귓불]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8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양 둘과 1년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해야 했다. 가루 한 에바는 약 22리터이며, 기름 한 록은 약 0.3리터이다. 나병환자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 하나를 취해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搖祭)를 삼아야 했다.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물과 번제물 죽이는 곳에서 죽이고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므로 속죄제물처럼 제사장에게 돌려야 했다. 또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환자의 오른편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야 하였다.

레위기 1장과 4장에 규정된 대로, 어린 숫양 하나는 속건제를 위해, 다른 하나는 번제를 위해 쓰였고, 어린 암양은 속죄제를 위해 쓰였다.

속건제는 죗값을 보상하는 뜻이 있고,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의 뜻이 있고, 번제는 속죄와 더불어 온전한 헌신의 뜻이 있고, 소제는 속죄와 더불어 온전한 순종의 뜻이 있다고 본다.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 정결함을 받아야 할 사람의 오른편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 것은 귀로 죄악된 말들을 듣고 손으로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발로 죄악된 길들로 갔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씻음 받고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겠다는 각오의 뜻이 담겨 있다.

〔15-20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부리[귓불]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해 자기 왼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가락으로 왼손의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환자의 오른편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르고, 그 손에 남은 기름은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했다. 속건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기름은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상징했다고 본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 얻었고 중생(重生)했고 성화(聖化)한다(고전 6:11; 딛 3:5-6).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해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해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죽이며 그 번제물과 소제물을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 사람은 깨끗케 되었다. 속죄제는

속죄를 상징하고, 번제는 속죄와 온전한 헌신을, 소제는 속죄와 온전한 순종을 상징한다고 본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각오해야 한다.

〔21-25절〕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귓불]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26-32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나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본문은 정결함을 받을 환자가 가난하여 이런 제물들을 준비할 힘이 없는 경우의 규례이다. 정결케 하는 제사와 방식은 비슷하였다.

〔33-47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나병] 색점을 발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집물(家藏什物)[집에 있는 모든 것]에 부정을 면케 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復發)하거든[다시 생기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 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재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본문은 집에 생긴 나병에 대한 규례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집에 나병 색점을 발하게 하거든"이라고 말씀하셨다(34절). 나병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48-53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죽이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 새를 가져다가 잡은**[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 새는 성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贖)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54절〕 이는 각종 문둥병[나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나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요약하면, 나병환자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다. 그는, 그 날 즉시 살아 있는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어야 했다. 또 그는 백성이 거주하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7일간 자기 장막 밖에 거해야 했고 제7일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자기 장막에 들어올 수 있었다. 또 제8일에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특히 속건제물의 피를 그의 오른편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며 또 기름도 그 위에 발라야 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나병 환자에게 죽인 새의 피를 일곱 번 뿌리고 산 새를 들에 놓아주게 하였다. 그것은 완전한 죄씻음을 상징한다. 죄인은 완전한 죄씻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롬 10:4).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죄인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케 하신다(요일 1:7). 사람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씻음과 영생의 구원을 얻어야 한다.

둘째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상징하며 정결케 될 나병환자의 귀와 손과 발에 발라진 기름은 성령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씻음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만 믿고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한다.

셋째로, 번제와 소제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며 또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른 것은 거룩한 삶의 시작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고(롬 6:12-13), 성경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으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한 새 삶을 살아야 한다.

15장: 유출병에 관한 법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유출병'이라는 원어(조브 זוֹב)는 '흘러나오는 것, 유출물'[9]이라는 뜻으로 병적으로 사람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피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인다(BDB).[10] 본문은 유출이 있는 자는 그 유출로 인하여 부정(不淨)하다고(다섯 번 사용함) 강조한다. 몸에서 그 유출물이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그는 부정하고 그러므로 그가 눕는 침상이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고 말한다.

〔5-12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木器)[나무그릇]**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

9) 영어성경들은 'issue'(KJV), 'discharge'(NASB, NIV)로 번역한다.

10) '유출병'이라는 원어(조브 זוֹב)는 '흐른다'는 단어(주브 זוּב)에서 나온 말로서 레위기 15장에서 13번 사용되었고, 또 '유출병이 있는 자'라는 단어(자브 זָב)도 9번 사용되었다.

유출이 있는 자는 이와 같이 부정(不淨)하기 때문에, 그의 침상을 만진 자, 그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 유출 있는 자의 몸을 만진 자, 유출 있는 자가 침을 뱉은 자, 유출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을 만진 자, 그런 것을 옮기는 자, 유출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자 등은 다 부정해지며 그런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본장에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표현이 열 번이나 반복해 나온다(5, 6, 7, 8, 10, 11, 13, 21, 22, 27절). 유출이 있는 자와 접촉된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해지며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였다. 또 유출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물로 씻어야 했다.

〔13-15절〕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유출 있는 자가 그 유출이 깨끗해지면, 그는 그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 7일을 계산하여 그의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러면 정할 것이다. 즉 유출 있는 자는 유출이 있는 동안 부정하고 그 유출이 깨끗해져도 7일 동안 부정하다는 말이다.

또 그는 제8일에 자기를 위해 비둘기 둘을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했다. 속죄제는 '속죄'의 뜻이, 번제는 '속죄'와 더불어 '온전한 헌신'의 뜻이 있다고 본다.

이 규정을 보면, 유출의 정결 의식은 단지 위생적 의미뿐 아니라, 죄씻음의 의미가 있었다. 모든 사람은 죄씻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인생의 죄사함이다. 죄가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요, 죄사함이 불행의 근본적 치료의 길이다.

〔16-18절〕 **설정(泄精)한**(세체 쉬케밧 자라 שִׁכְבַת־זָרַע חֻצֵּא)[정액을 배출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精水)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泄精)하였거든**[정액을 배출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액을 배출한 자는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하였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또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아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남녀가 동침하여 정액을 배출하였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19-24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여자가 피를 유출하는 경우 7일 동안 불결할 것이다. 그것은 여성의 생리를 가리킨다. 그 여자가 불결할 동안 그의 누웠던 자리나 그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할 것이다. 또 앞에 기록된 유출의 규례에서와 같이, 유출이 있는 여자를 만지는 자,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 그 좌석을 만지는 자, 그의 침상과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는 하루 동안 부정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생리 중인 여자와 동침하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즉 율법은 여성의 생리 기간에는 부부 관계를 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25-27절〕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생리 기간]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생리 기간]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피의 유출에 대한 규정은 여성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즉 생리 기간 외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 피의 유출이 생리 기간 외에 여러 날 갈 때에도 그 여자는 부정할 것이다. 또 그의 침상이나 좌석에 접촉한 자도 부정하므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할 것이다.

〔28-30절〕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여자의 피 유출이 그치면, 그 여자는 7일 후에야 정결케 된다. 즉 그 여자는 피의 유출이 멈춘 후에도 7일 동안 부정한 것이다. 또 그 여자는 제8일에 비둘기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해 취해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로 부정한 여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했다. 역시, 속죄제는 '속죄'의 뜻이, 번제는 '속죄'와 더불어 '온전한 헌신'의 뜻이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유출병은 죄로 인한 불결로 간주되었다.

〔31-33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泄精)함[정액을 배출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유출에 대한 규례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정(不淨)에서 떠나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유출의 정결 의식은 죄에서 정결케 됨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유출은 사람의 숨은 죄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 불신앙, 교만, 이기심, 욕망 등의 죄들은 남 앞에 드러나지 않으나 사람을 더럽히는 죄악들이다. 주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5:19-20). 죄는 더러운 것이다.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죄악들도 그러하다.

둘째로, 유출 환자와의 접촉이나 그가 앉았던 침상이나 좌석의 접촉은 사람을 하루 동안 더럽힌다. 접촉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했다. 유출의 규례는 죄인과의 교제에 관해 교훈하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과의 교제를 피할 것을 교훈한다고 본다. 죄인과 접촉하는 자는 깨끗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불신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교훈하며(고후 6:14-18) 믿는 형제라도 성경 교훈대로 행치 않는 자와는 교제를 금하라고 명한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살후 3:6).

셋째로, 유출이 있는 자는 부정하며 정결함을 얻어야 했고 유출이 있는 자와 접촉한 자도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했다. 유출에 대한 규례의 요점은 정결함에 있다. 부정한 자는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죄씻음을 가리켰다. 주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음란과 탐욕 등 죄악된 욕심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혹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나아가(슥 13:1) 씻음 받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실 것이다(요일 1:9).

16장: 속죄일

〔1-5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帳)[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숫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바지]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숫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숫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지성소와 속죄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막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계시의 사건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숫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들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해 숫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해 숫양 하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다.

〔6-10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아자젤 עֲזָאזֵל)[내어놓는 염소(scapegoat)](KJV, NASB, NIV)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내어놓는 염소]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내어놓는 염소]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내어

놓는 염소'로 제비 뽑은 염소는 산 대로 광야로 보내어야 하였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정결법 때에 산 새 한 마리를 들에 놓았던 것처럼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한다고 본다.

〔11-1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죽이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두 움큼의]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죽여]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론은 먼저 자신과 제사장 가족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죽여야 했다. 그런 후 그는 향로를 취해 여호와 앞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두 움큼의(NASB, NIV)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첫 번째로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증거궤 위 여호와 앞에서 향을 살라 그 향의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야 했고 그래야 그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또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아마 두 번째로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했다. '피를 일곱 번 뿌리는 것'(14, 19절)은 완전한 죄사함을 상징한다.

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인 숫염소를 죽여 그것의 피를 가지고 다시, 즉 아마 세 번째로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야 하였다.

이렇게 아론은 이 날 지성소에 아마 세 번 들어가 속죄제사를 드림

으로써 제사장 가족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不淨)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不淨)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 그같이 해야 했다.

〔17-19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不淨)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20-22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無人之境)**[한적한 곳]**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을 속죄[정결케]하기를 마친 후에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것이며 그 사람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無人之境) 즉 한적한 곳에 이르면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어야 했다. 이것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였다고 본다.

〔23-28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내어놓는 염소로]**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

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살라야 했고, 염소를 '내어놓는 염소로 보낸 자'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와야 했다. 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는 그 피를 성소로 들여와 속죄하였으므로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밖으로 내어다가 불살라야 했고,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와야 했다.

〔29-31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솹밧 솹바손 שַׁבַּת שַׁבָּתוֹן)['휴식의 안식일'(a sabbath of rest)(KJV, NIV), '엄숙한 휴식의 안식일'(a sabbath of solemn rest)(NASB)]**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것이 매년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오늘날의 9월 말)에 지켜야 할 '속죄일'(욤 학키푸림 יוֹם הַכִּפֻּרִים) 규례이다(레 23:26-32).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명하셨다. '괴롭게 하라'는 원어(테안누 תְּעַנּוּ)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는 뜻으로서(NASB)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본다(BDB, Amplified Bible). 또 그 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불렸다. '큰 안식일'은 '휴식의 안식일' 혹은 '엄숙한 휴식의 안식일'이라는 뜻이다.

〔32-34절〕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聖衣)[거룩한 옷]**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 1차씩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했던 이 속죄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진리를 예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려 단번에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단번에'라는 말로 증거했다(에파팍스 ἐφάπαξ 3번, 하팍스 ἅπαξ 2번)(히 7:27; 9:12, 26, 27; 10:10). 메시야의 단번 속죄의 진리는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언되어 있다(단 9:24; 슥 3:9).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사역을 예표한다. 대제사장은 1년 1차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내어놓는 염소'를 통해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됨을 보이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전 1:30).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인해 우리는 많은 영적 은택을 누린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없었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롬 3:21-24).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롬 5:1).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히 10:19)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히 4:16) 하나님과 교제한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聖化)를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으로 주신 의(義)와 성령의 내주(內住)하심은 성도들의 성화(聖化)의 원동력이다.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1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17장: 피를 먹지 말 것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죽이든지 진 밖에서 죽이든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 회막문으로 가져오지 않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본문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에 회막 앞에 가지고 나아와야 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짐승의 고기를 먹고자 하면 어디에서나 죽여 먹을 수 있었다. 신명기 12:15, 2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무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그러나 제사 장소의 법은 엄격하여 이 법을 어기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되었다. 그것은 제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부패되지 말아야 하고 사람 중심적이거나 경박하거나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이나 출교 또는 하나님의 직접적 징벌을 의미한다고 본다.

〔5-9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죽이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레아크 니코아크 רֵיחַ נִיחֹחַ)[유화(속죄)의 향기]**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끊어지리라].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유화(속죄)의 향기가 되게 해야 했다. 또 사람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귀신들'(세이림 שְׂעִירִם)(NASB, BDB)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야 했다. 또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회막문에 가져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10-13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알 나프쇼세켐 עַל־נַפְשֹׁתֵיכֶם)[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KJV, NASB) **속하게 하였나니** [이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반네페쉬 בַּנֶּפֶשׁ)[생명 때문에](ASV, NASB)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먹지 말아야 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반복해 기록한다(10, 12, 14절). 또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11, 14, 14절).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귀한 진리를 밝히 증거하셨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이 피를 단에 뿌려 우리의 생명을 위해 혹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죄

를 속하게 한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贖)한다.

〔14-16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피가 생명임을 다시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도 먹지 말아야 했다. 혹 그런 것을 먹은 자는 몸을 정결케 해야 했다.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법을 포함하여 모든 의식법이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고 믿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3은 모든 의식법들이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골로새서 2:16-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중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규례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었던 초대교회를 위한 임시적 조치이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장 11절에 증거된 피의 속죄 개념은 우리의 구원에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피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부터 암시되었고, 그것은 그 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도 증거되었다. 인류 역사 초기로부터 행해진 번제는 피의 중요성을 암시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 제도는 피의 중요성을 증거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성소의 휘장이나 지성소 안의 속죄소에도 일곱 번 뿌려야 했다.

이 속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의 속죄 사역은 피 흘리신 사역이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식사를 하실 때 포도즙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6:28).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이루는 속죄의 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

사도 바울은 피의 속죄를 밝히 증거하였다. 로마서 3:25,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유화제물]로 세우셨으니." 히브리서 9:12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의 죽음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셨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의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18-19에서 증거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救贖)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하였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7에서 증거하기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경은 피의 속죄를 증거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짐승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예표하였다. 구주 예수께서는 피를 흘리셨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위해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8장: 성 도덕에 관한 법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마아세 מַעֲשֵׂה)[행위들]**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영원자존자이신 여호와, 온 세상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셨다. 그는 참으로 인류에게 의로운 법을 주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 곧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가 명하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이 법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의(義)이며 그 의가 사람에게 영생이 됨을 보인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의의 결과는 생명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 없는 뿌리깊은 죄성(罪性)을 가진 죄인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롬 10:4; 고전 1:30).

〔6-8절〕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세상 풍속의 한 두드러진 특징은 성적인 부패 곧 음란이다. 본장은

음란, 특히 근친상간을 경계하라고 교훈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고 명하셨다. '하체를 범한다'는 원어(레갈로스 에르와 לְגַלּוֹת עֶרְוָה)는 '벌거벗음을 드러낸다'(KJV, NASB), '동침한다'(BDB), '성 관계를 갖는다'(NIV)는 뜻이다. 사람은 어머니나 계모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본장의 내용은 근친상간뿐 아니라, 근친결혼도 금한 법이라고 본다(칼빈, 매튜 풀).

〔9-14절〕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골육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골육지친이니라.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모니라.

사람은 자기의 누나나 여동생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되며, 또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된다. 또 사람은 계모가 낳은 딸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또 고모나 이모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되며, 또 백모나 숙모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된다.

〔15-18절〕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니 이는 악행(짐마 זִמָּה)[음란한 악(BDB), 악한 일(KJV, NIV), 음탕함(NASB)]**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은 며느리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되며, 형수나 제수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된다. 또 사람은 여인과 그의 딸을 함께 취하든지, 여인과 그의 손녀나 외손녀를 함께 취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악행'이다.

〔19-21절〕 너는 여인이 경도[생리]**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불태워 드리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은 여인의 생리 기간에 그의 하체를 범해서도 안 되며 타인의 아내와 간음해서도 안 된다. 또 사람은 자녀를 몰렉에게 불태워 드려서는 안 된다. 자녀를 몰렉에게 불태워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의 지극히 가증한 우상숭배의 행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성도가 몰렉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 행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큰 죄악이다.

〔22-23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토에바 תּוֹעֵבָה)**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테벨 תֶּבֶל)[(본성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문란(BDB, KJV), 성적 도착(倒着, 정로에서 벗어남)(perversion)(NASB, NIV)]**이니라.**

동성과의 교합과 짐승과의 교합도 매우 음란한 일이다. 음란이 다 가증한 악이지만,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되었고, 또 짐승과의 교합 혹은 교접은 '문란한 일'이라고 표현되었다. '문란한 일'이라는 원어는 본성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문란이라는 뜻이다.

〔24-30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는 더러운 것이며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음란한 행위들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가나안 족속들과 그 땅은 이 모든 일로 인해 더러워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들을 벌하실 것이며, 그 땅도 그 거민들을 토하여 낸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가증한 행위들로 자신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며 그 땅도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풍속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행해야 한다(3-4절). 로마서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교훈대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로, 본장은 근친상간과 동성애 등의 각종 음행을 명백히 정죄한다. 이것은 신약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3-5,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라." 우리는 각종 음행을 조심해야 하고 음행 방지를 위해 성경의 교훈대로 부부 관계를 잘 지켜야 한다(고전 7:2).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를 엄하게 벌하실 것이다. 25절,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녀노소를 다 멸하게 하셨다(신 7:2-5; 수 6:21). 그것은 심판이었다. 또 음행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하였다. 29절,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는 말은 사형이나 출교를 가리켰다. 신약성경은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고전 6:9-10; 갈 5:19-21; 엡 5:5; 계 22:15)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계 21:8).

19장: 여러 가지 법들

1-12절, 십계명 순종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와 악과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그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계명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안식일들]**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출 20:12).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높이고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잠언 23:22,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에베소서 6:1-3,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들'이라는 말은 주간 안식일 외에 구약 율법에 규정된 다른 안식일들을 가리킨다.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29장을 보면, 주간 안식일 곧 제7일 안식일 외에, 연중에 일곱 번의 안식일들이 있다. 그것은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 맥추절, 나팔절(7월 1일), 속죄일(7월 10일), 초막절의 첫째 날과 여덟째 날 등 일곱이다.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하

면, 구약의 율법에는 모두 열 개의 안식의 날 혹은 해가 있다. 특히 주간 안식일과 연중 안식일들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다. 안식일은 세상의 일들, 곧 직업상의 일들이나 육신적 오락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공적 집회로 모이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의 표이며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출 31:13-17).

〔4절〕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것'이라는 원어(엘릴림 אֱלִילִם)는 '우상들'을 가리킨다. 우상들을 위하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만들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에 명령된 바이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위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며, 그것을 위하는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다.

오늘날에는 돈이나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고 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교인들 중에도 예배 드리는 일과 성경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진지함과 열심이 없고 육신적 재미와 흥미만 추구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다.

〔5-8절〕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열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열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화목제물은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다. 레위기 7장에 보면, 그 제물은 규례대로 드려야 했다. 감사의 화목제물은 드린 그 날에 먹어야 했고 그 이튿날에 먹어서는 안 되었다.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은 이튿날에 먹을 수 있으나 제3일에는 먹지 말고 불태워야 했다.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열납되

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9-10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법은 레위기 23:22에도 나온다. 또 모세는 신명기 24:19-22에서,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것이 선(善)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제8계명에 해당한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해야 함을 명하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을 도적질로 간주한다. 부모의 것과 자식의 것도 구분되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도 구분된다.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에 해당한다. 우리는 남을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고 말하였고(엡 4:25),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고 교훈하였다(골 3:9).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계 22:15)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계 21:8).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본절 말씀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에 관계된다(출 20:7).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되이, 진지하게 사용해야 한다. 엄숙한 맹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헛되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큰 죄악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2, 3, 4, 10절) 영원하신 참 하나님 곧 창조자와 섭리자이시며 이 모든 율법을 명하신 자이시다.

본문은 여러 가지를 교훈한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죄악과 불결을 버리고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복을 받는 길이다.

셋째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 날 세상 일들을 쉬고 오락을 금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한다(사 58:13-14).

넷째로, 우리는 돈과 육신적 쾌락을 포함하여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를 부정하고 범사에 절제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다.

여섯째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남의 것을 취하지 말고 도리어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로, 우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 것을 깨닫고 모든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여덟째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두려움과 진실함으로 사용해야 한다.

13-18절, 공의와 사랑

〔13절〕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아솨크 עָשַׁק)[압제하지(NASB), 강탈하지, 속여 빼앗지(defraud)(KJV, NIV)]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압제한다'는 원어는 폭력과 위협으로나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며 '늑탈한다'는 말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한다. 세상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강도짓은 도적질보다 더 나쁘다. 또 우리는 폭력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또 "너는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품꾼은 누구에게 고용된 일반 노동자를 가리킨다. 고용주는 일 시킨 값을 정중히 그 날 혹은 그 시간에 지불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24:14-15,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이다. 비록 귀먹은 자는 그의 저주를 듣지 못하고 소경은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다 보시며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본절과 16절과 18절에,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명령의 근거와 권위를 증거한다. 이 명령들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은 사람들 상호간에 생긴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그러므로 재판에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3: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17에 보면,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 등을 세우고 그들에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라"고 말했다.

〔16절〕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라킬 רָכִיל) [남을 중상(中傷)하지, 즉 거짓 소문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남을 중상(中傷)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거짓 소문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출애굽기 23:1,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거짓 소문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참으로 나쁜 일이다. 세상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고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니며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 지적하였다(렘 6:28; 9:4). 에스겔도 에스겔 22:9에서 그런 자(한글성경에 '이간을 붙이는 자'라고 번역됨)를 언급했다.

시편이나 잠언도 이런 자를 정죄한다. 시편 15:3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훼방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였다. 또 시편 101:5는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했다. 또 잠언 11:13과 20:19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라고 번역한 말이 같은 단어이다. 그것은 남을 비난하고 헐뜯으며 돌아다니는 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자와 친구가 되지도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와 집사의 아내들의 자격에 대해 말하면서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다(딤전 3:11). 참소하는 것이 거짓말로 남을 헐뜯는 것을 말한다. 그는 또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한다(엡 4:31).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1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궤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한다. 우리는 거짓 소문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또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웃이 잘못을 하면 그를 책망할 수 있지만, 그를 죽음에 내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17절〕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責善)[책망]하라.

하나님께서는 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미움은 마음의 살인이다(요일 3:15).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웃에 대한 미움부터 없애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망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웃이 잘못을 행할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이웃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뜻이다. 참된 사랑은 이웃의 잘못

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14,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勸戒)하라." 히브리서 3:12-13,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케 됨을 면하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 공의로 보복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6:27-28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교훈하셨다. 로마서 12:19-20에, 사도 바울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교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남을 원망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달게 받고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한다. 빌립보서 2: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야고보서 5: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은, 주께서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두 개 중 두 번째의 계명이다(마 22:35-40).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다. 로마서 13:10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이웃을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지 말아야 한다. 그런 행위는 도적질보다 더 나쁜 행위이며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일을 맡긴 자에게 그 삯을 뒤로 미루지 말고 약속대로 정한 때에 주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은 그 삯을 간절히 기다린다.

셋째로, 우리는 못 보고 못 듣는 이웃을 저주하거나 해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미워하시고 모든 일을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다섯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짓되이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이웃을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로 남의 명예와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참으로 나쁜 일이다. 또 우리가 이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를 살리는 것이어야지 죽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로, 우리는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움은 이미 마음으로 그를 죽인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일곱째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보면 지적하고 책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하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을 것이다.

여덟째로,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한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아홉째로, 우리는 이웃을 원망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인정해야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부족을 반성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말고 담대히 대처해야 한다.

열째로, 우리는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상의 법들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이다.

19-28절, 순수한 종교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규례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교훈이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하시고 세우신 규례들임을 강조하시며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가축들의 이종교합(異種交合)을 금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수나귀와 암말의 교합으로 노새를 낳게 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관습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잡케 하는 일이다. 수노새가 생식력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혼잡을 인정치 않으신다는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밭에 씨를 뿌릴 때, 벼와 보리, 밀과 수수를 섞어 뿌리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물들도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각각의 종류대로 재배되고 추수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두 재료로 직조(織造)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면, 아마포(리넨)와 양모, 혹은 면사와 명주실로 섞어 만든 옷 같은 것을 입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오늘날에는 섞어 짠 천으로 만든 혼방 옷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이런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셨다.

위의 세 가지 규례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혼잡케 하지 말라는 뜻이 있다. 이 규례들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들과 세상의 어리석은 사상들을 혼합시키는 혼합주의 즉 오늘날 말로 종교다원주의를 금하는 영적 교훈을 준다고 본다.

〔20-22절〕 무릇[누구든지] 아직 속량(贖良)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종과의 행음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한 여종이 어떤 사람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속량되거나 자유롭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인이 그와 행음하면,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여종이 아직 자유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그 주인은 숫양을 속건제물로 삼고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와야 하며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해 그 속건제의 숫양을 드려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하고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

〔23-25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난 곡물(穀物)을 먹게 하셨다. 그들이 길갈에 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들은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 즉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수 5:10-11). 곡식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허락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나무로 간주하여 그 과일을 먹지 말고 제4년에는 그 과일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고 제5년부터 그 과일을 먹으라고 규정하셨다. 과일은 필수적인 식단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부터의 성별을 교훈하신 것 같다. 하나님께

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사는 거민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게 명하셨다. 그런 정신에서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나무들의 과일들도 다 버려야 마땅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3년의 기간을 주셨던 것이다. 이 규례는 가나안 땅의 과일나무들이 성별되어야 함을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피째]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나카쉬 נָחַשׁ) **[점을 치지] 말며 술수를 행치**(아난 עָנַן)**[(거짓) 예언을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레위기 17:12, 14에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노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는] 점을 치지 말며 거짓 예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악령들의 활동으로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는 등의 신비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다. 거짓된 신비주의는 참된 경건을 떠나게 한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는 교훈이다.

〔27-28절〕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 가를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의 풍습이었고 죽은 자를 위해 살을 베고 몸에 무늬를 놓은 것, 즉 문신(文身)을 새기는 것도 당시 이방인들의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행위와 풍습이었다고 한다(Harrison).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방인들의 그런 풍습들을 본받지 말기를 원하셨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가축들 간의 교합이나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을 금하셨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질서를 혼잡케 말라는 뜻을 가지며 또 참된 종교를 이방종교와 혼잡시키지 말라는 영적인 뜻도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진리의 혼잡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와 이방종교를 혼합시키지 말아야 하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보수하며, 기독교를 이방종교와 혼합하여 변질시킨 천주교회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해야 하고 또 오늘날 각종 이단사설들을 배격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점을 치지 말며 거짓 예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신약성경도 우리가 거짓된 신비주의를 경계하라고 교훈한다(마 24:24; 계 13:13, 15; 살후 2:9-12). 우리는 악령의 활동으로 점을 치거나 무당의 예언을 듣는 등의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초자연적 은사들을 추구하여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을 강조하며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과 신사도운동가들의 거짓된 말들과 허풍들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모든 바른 교리들을 배우고 믿고 확신하고 성경의 모든 생활교훈을 힘써 실천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 가를 둥글게 깎는 것이든지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것이든지 죽은 자를 위해 살을 베거나 문신을 새기는 것을 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조심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앞이 많이 파진 옷과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시끄럽고 광란적이고 음란성 있는 노래들도 듣고 부르고 춤도 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런 풍조에 물들거나 따라가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복장도 단정해야 한다.

29-37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29절〕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淫風)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네 딸을 더럽혀 (혹은 범하여) 그로 음행을 하게 하지 말며, 온 땅이 음행하며 온 땅이 죄악이 가득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가정에서의 성결을 명하신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순결성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 준수는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또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엄하게 교훈하고 지도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들을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교훈하였다(고전 6:18-2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성을 염려하신 것은 신약교회의 도덕성을 염려하신 것이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와 성도들의 삶에는 음란 풍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또 나아가서, 성도들은 이 세상과 세속 사회에 선한 본이 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마 5:14)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본이 될 것이다.

〔30절〕 내 안식일[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내 안식일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들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들을 구별하여 휴식과 공예배의 날로 지키게 하셨다. 안식일들은 온종일 또 온 식구가 잘 지켜야 했다. 특히 주간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 날을 범하는 자에게 죽음이 경고되었다. 출애굽기 31:14-15,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聖日)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내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소를 공경해야 했다. 성막은 후에 성전이 되었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가 모이는 장소인 예배당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신약 성도는 교회에 힘써 모여야 한다. 히브리서 10:25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한다. 또 성도는 교회를 욕하거나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3:16-17,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거짓된 신비주의를 금하신 말씀이다. 26절에서도, "점을 치지 말며 거짓 예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

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다(마 7:15-16, 22-23).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32절〕 너는 센머리[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교훈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교훈과 함께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노인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5계명, 즉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내포된 바이다. 우리는 집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나 사회에서는 나이든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 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는 말씀대로(잠 20:29), 노인들은 흰머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생의 아름다움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하고, 또 젊은이들은 머리가 희어진 노인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된 교회와 사회의 모습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잠언 15:20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고 말했고, 잠언 30:17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하였다. 또 에베소서 6장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한다(엡 6:1-4).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들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게 양육해야 한다.

〔33-34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

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동족같이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명령하셨다.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한다. 주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그네된 형제를 돌보지 않은 것이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5:35-36, 40). 또 감독의 자격 요건들 중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딤전 3:2; 딛 1:8). 히브리서 13:1-2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찾아온 새얼굴들부터 따뜻하게 영접해야 한다.

〔35-36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재판을 할 때나, 장사를 할 때나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할 것을 명하신 것이다. 우리는 더러운 이, 즉 불의하고 부정당한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하는 자와 장사하는 자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자신에게 복이 된다. 잠언 16:8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들 중의 하나로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는 것'을 꼽았다(딤전 3:2; 딛 1:8).

〔37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11]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했다. 오늘

---

11) 레위기 19장에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여덟 번(12, 14, 16, 18, 28, 30, 32, 37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일곱 번(3, 4, 10, 25, 31, 34, 36절) 나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가 성경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義)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 3:16). 데살로니가후서 2:15,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遺傳)을 지키라."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 우리는 주일에 온 식구가 교회에 나와 그 날을 온종일 거룩히 지키도록 하고 또 교회를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 안에 유행하는 거짓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조심하고 배격하고 오직 성경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고 보답하고 순종해야 하고, 또 교회와 사회에서는 나이든 이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배우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교회에 찾아온 새얼굴들을 영접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는 음란한 행위와 풍조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하고, 우리 자녀를 음란한 세상과 구별되게 단정하고 순결하게 키워야 하며,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야 한다.

여섯째로, 우리는 재판이나 상거래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고, 상업 활동에서 결코 불의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일곱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교훈을 행해야 한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법칙이며,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교훈을 순종해야 한다.

20장: 율법을 어긴 벌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그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5, 6절도 동일함)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거룩한 이름]**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체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그 가족을 대적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식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경내에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런 자도 사형을 시켜야 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만일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을 못 본 체하고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자와 그 가족들을 죽이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그를 대적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거짓된 신비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거짓된 신비주의는 영적 간음으로 간주되므로 '음란하듯'이라고 표현된다. 영적으로 말해, 모든 사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야 한다.

〔7-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케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 우리

는 오직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17에서도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신명기 27:16에서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하였다. 부모를 공경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10-13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그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子婦)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테벨 תֶּבֶל)[문란한 일](BDB)**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토에바 תּוֹעֵבָה)**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음행의 죄에 대한 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남의 아내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했다. 결혼 관계의 순결성은 잘 지켜져야 한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 즉 그의 어머니 혹은 계모와 간음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며 둘 다 사형을 당할 큰 죄악이다.

사람이 그의 며느리와 간음하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며 문란한 일(confusion)(KJV)이고 그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사람이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며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였다. 동성애(同性愛)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며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악이다.

〔14-17절〕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사람이 아내와 그 장모를 함께 취하면 혹은 결혼하면(NASB, NIV) 악행(짐마 זִמָּה)이며 그와 그들 곧 그 셋을 다 불태워 죽여야 했다. 그 셋을 '함께 불사르라'는 말씀은 그들의 죄가 심히 큼을 나타낸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여야 하고 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여자와 짐승을 다 반드시 죽여야 했다.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큰 죄로 간주된다.

사람이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면 부끄러운 일이며 그들은 그 민족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말은 출교나 사형, 혹은 하나님의 직접 치심을 의미하였다고 본다.

〔18-21절〕 누구든지 경도(經度)하는(다와 דָוָה)[생리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골육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자(無子)히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남자가 생리하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죄이다. 생리하는 여인을 범하는 것은 죽을죄에 해당하였다.

사람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거나 백모나 숙모의 하체를 범하면 무자(無子)히 죽을 것이다. '무자(無子)히 죽는다'는 말은 자녀를

얻는 기회가 없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본다. 그것이 본장 전체의 문맥과 내용상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 사람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며 그런 자도 무자(無子)히 죽을 것이다. 그런 자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더러운 일'이라는 원어(닛다 נִדָּה)는 '가증한 일'이라는 뜻이다.

〔22-24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앞에 언급된 여러 가지 간음과 음행의 죄악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유행하였던 풍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심히 죄악됨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시고 그 거민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미워하신다. 그는 특히 모든 우상숭배의 죄들과 모든 음란한 죄들을 미워하신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죄악들이다.

〔25-26절〕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 그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

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접하거나 박수가 된 남녀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도 또 그런 자를 추종해서도 안 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우상숭배치 말고 거짓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본장은 간음과 음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계한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성의 잘못된 사용은 죄악이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는 죄악이다. 온갖 근친상간의 행위가 그러하고 심지어 동성간이나 짐승과의 교합도 그러하다.

둘째로, 우리는 율법을 어긴 벌이 죽음인 것을 알아야 한다. 본문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이 아홉 번(2, 9, 10, 11, 12, 13, 15, 16, 27절),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혹은 "끊어지리라"는 말이 다섯 번(3, 5, 6, 17, 18절), "불사를지니라"는 말이 한 번(14절), "무자(無子)하리라"는 말이 두 번(20, 21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이 다섯 번(9, 11, 12, 13, 16절),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는 말이 세 번(17,19, 20절), "돌로 그를 치라"는 말이 한 번(27절) 나온다. 율법을 어긴 죄의 벌은 죽음이며 죄인의 정당한 죗값이다. 간음의 죄는 가정적, 사회적 폐해를 낳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義)만 의지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죄의 벌을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과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 로마서 12:1,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복된 삶이며 영생에 이르는 삶이다.

21장: 제사장에 대한 법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바알 בַּעַל)['어른인즉'(being a chief man)(KJV) 혹은 '결혼에 의한 친척으로서'(as a relative by marriage)(NASB)]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들이다. 제사장들은 성막 제사의 거룩한 직무를 맡은 자들이므로 백성들 중의 죽은 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으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은 친자매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허용되었다. 그러나 결혼에 의한 친척으로 즉 처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금지되었다고 보인다.

〔5-6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火祭)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이므로 거룩해야 하였다. 그는 머리털을 대머리같이 깎는다든지 수염 양편을 깎는다든지 살을 베는 등(레 19:27-28)의 이방 풍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었다.

〔7-8절〕 그들은 기생[매춘녀]**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그는 너에게 거룩하리라](MT, KJV, NASB).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해

야 하였고 거룩함에 흠이 되는 일을 피해야 하였다. 본장은 제사장이 거룩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문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반복해 말한다.

〔9절〕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제사장들인 남자들뿐 아니라, 그 가정의 딸들도 단정해야 하였다. 만일 그들 중 누가 음행하면 그는 그 아버지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는 엄한 징벌, 즉 화형(火刑)의 징벌을 받아야 했다. 제사장의 가정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였다.

〔10-12절〕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유차크 יוּצַק)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중에서 관유로 기름부음을 받아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야 하였다. 그는 심지어 부모로 인하여도 성소에서 나와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퍼하거나 죽은 자의 시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 등,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대한 직무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다(레 16:3-4, 6, 11, 21, 23, 32).

〔13-15절〕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매춘녀]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대제사장의 경우는, 결혼 상대에 대해 일반 제사장들의 경우보다, '처녀를 취하고 과부와 결혼하지 말라'는 한가지 요건이 더 첨가되었다. 일반 제사장은 제사장의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었다(겔 44:22).

〔16-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몸]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난쟁이]나 눈에 백막(白膜)이 있는 자(테발룰 תְּבַלֻּל)[시력이 나쁜 자(BDB), 안구에 흰점이 있는 자(KB)]**나 괴혈병**(가라브 גָּרָב)[옴(itch), 붉은 곰팡이 병(scab)](BDB, KB)**이나 버짐이 있는 자**(얄레페스 יַלֶּפֶת)[피부에 발진이 있는 자(BDB), 백선(ringworm)이 있는 자(KB)]**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제사 일을 금지한 신체적 결함이란, 소경, 절뚝발이,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곱사등, 난쟁이, 안구에 흰점이 있는 자, 옴이나 붉은 곰팡이 병이 있는 자, 백선이 있는 자, 불알 상한 자 등이다.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식의 지성물(至聖物)이나 성물은 먹을 수 있었다. '지성물' 즉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진 제물을 가리킨다(레 2:3; 6:17; 7:1; 14:13).

그러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려고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번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흠이 있기 때문이었다. 본문은 '흠이 있는 자'라는 말을 세 번(17, 18, 21절), '흠이 있은즉' 또는 '흠이 있음이라'는 말을 두 번(21, 23절) 말한다. 흠이 없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흠이 없는 대제사장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거룩하고 흠 없으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진리는 히브리서에 잘 증거되어 있다. 히브리서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고 우리의 거룩과 의(義)가 되셨다. 히브리서 9:12,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로마서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본받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2:5,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와 직접 교제할 수 있다.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과거에 범죄하고 실수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성(罪性)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위로와 동행하심과 도우심과 기도 응답을 구하며 체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흠과 점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22장: 깨끗한 제사장, 깨끗한 제물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聖物)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聖號)[거룩한 이름]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문둥[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泄精)한[정액을 배출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應食)[식량, 양식]이 됨이니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7:20에서도,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끊어질]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다.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이나 출교,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심을 가리킨다고 본다.

성물에 가까이할 수 없는 부정한 경우는, 나병이나 유출이 있든지 시체로 부정케 되었든지 정액을 배출하였든지 혹은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에 접촉된 것 등이다. 나병이나 유출병은 다 나은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고, 시체로 부정케 되었거나 정액을 배출하였거나 부정한 벌레에 접촉된 경우는 저녁까지 부정하므로 해 진 후에 몸을 물로 씻고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또 제사장들은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했다. 그들

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으로 온전히 지켜야 했다.

〔10-13절〕 **외국인**[제사장이 아닌 자]**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군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擧祭)**[드는 제물]**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응식(應食)**[식량]**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아닌 자나 객이나 품꾼은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었으나 가족이나 돈으로 산 종이나 집에서 출생한 종들은 먹을 수 있었다.

〔14-16절〕 **사람이 부지중**(비쉐가가 בִּשְׁגָגָה)[실수로]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위의 법을 어긴 자의 벌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람이 부지(不知) 중에 즉 실수로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고, 만일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였다.

〔17-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자원제]**로 번제를**[또 그들이 번제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열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열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 것을 명하셨다. 18절에 "서원제나 낙헌제[자원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이라는 구절의 뜻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이 구절은 직역하면, "그가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릴 때,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로 예물을 드릴 때"이다. 이 구절의 뜻은 "그들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로 드릴 때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인 것 같다. 율법에 의하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암컷이나 수컷을 화목제로 드리고(레 3장),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다(레 1장).

〔21-22절〕 [또]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열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베임을 당한**(카루츠 חָרוּץ)[몸의 한 부분이 절단된, 불구가 된(maimed)(KJV, NASB)] **것이나 종기 있는 것**(얍벨레스 יַבֶּלֶת)**이나 괴혈병**(가라브 גָּרָב)[옴(itch, scab)(BDB, KB), 습진(eczema)(NASB)]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얄레페스 יַלֶפֶת)[붉은 곰팡이 병(scab)(BDB, NASB), 백선(ringworm)(KB)]**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또 서원제나 자원제의 화목제물은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명하셨다. 예를 들어, 눈먼 것, 상한 것, 몸의 한 부분이 절단된 것, 종기 있는 것, 옴 혹은 습진 있는 것, 붉은 곰팡이 병 혹은 백선이 있는 것 등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명하셨다.

〔23-25절〕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예물**[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열납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베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열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자원제물로는 써도 되지만,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열납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불알이 상했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베임을 당한 것은 여호

와께 드리지 말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고 이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고 명하셨고, 이런 것은 결함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이므로 그들을 위해 열납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26-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열납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무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同日)에 잡지**[한날에 죽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하시기를, 갓 태어난 새끼가 적어도 7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고 하셨고 또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짐승도 아마 모성애 같은 본능이 있기 때문이며 또 짐승에게 너무 잔인하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출애굽기 22: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29-33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열납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聖號)**[거룩한 이름]**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사람의 감사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화목제물은 감사한 마음이 식기 전에 다 먹도록 하신 것일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아가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부정한 자는 예외이었다. 오늘날 신약 성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9,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19,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신약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룩한 교회와 예배당에 드나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감히 해석하고 들을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부정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그 분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반복해 교훈한다. 사도 바울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교훈했고(롬 6:19), 또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교훈하였다(벧전 1:14-15). 구원 얻은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흠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들, 즉 찬양도, 기도도, 설교를 전함과 들음도,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예물이 되게 해야 한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한 심령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다(요 4:24). 시편 96:8-9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른 예배 태도이다. 선지자 말라기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지적하며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고 말했다(말 1:7-8).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흠 없는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23장: 절기들

율법에 하나님의 절기들에 대한 법은 주로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25장, 민수기 28-29장, 신명기 15-16장에 있다. 구약시대에는 본장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절기들 외에, 월삭(민 28장), 안식년(레 25장, 신 15장), 희년(레 25장) 등 모두 열 가지의 절기들이 있다.

1-22절, 안식일, 보리 초실절, 무교절, 맥추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聖會)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聖會)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절기'라는 원어(모에드 מוֹעֵד)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BDB). 또 성회(聖會)라는 원어(미크라 코데쉬 מִקְרָא־קֹדֶשׁ)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으로, 안식일과 절기들에 모이는 모임을 가리킨다. 절기는 성회의 날이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출 20:11) 하나님의 언약의 표이었다(출 31:12, 16-17). 그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로서 모든 세상일을 중단하고 쉬는 날이며 '성회' 곧 공적 집회로 모이는 날이었다. 그 날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출 31:14-15).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

〔4-8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聖會)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聖會)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火祭)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聖會)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연중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은 '축제'(카그 חַג)(feast)로 불리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이다. 구약시대에 하루는 해가 진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진 저녁까지이므로,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그 두 절기는 동일시되기도 한다. 또 무교절의 7일 중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켰다. 이와 같이, 구약의 연중 여섯 절기들 중에는 일곱 번의 안식일들이 있었다(무교절 2번, 맥추절 1번, 나팔절 1번, 속죄일 1번, 초막절 2번).

유월절(逾越節, 페사크 פֶּסַח)은 '넘어간다'는 말(파사크 פָּסַח)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 장자를 죽였으나 이스라엘 집은 천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유월절은 애굽 왕 바로의 권세로부터 기적적으로 놓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이 있었다. 유월절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전 5:7).

〔9-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약 4.4리터)**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유화의 향기]**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힌 4분 1**(약 1리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보리 추수의 계절인 무교절 기간에 보리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는 날이다. '안식일 이튿날'은 바리새파에 의하면 1월 16일을 가리키고, 사두개파에 의하면 주간 안식일 이튿날을 가리켰다고 한다.[12] 보리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뜻이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였다.

〔15-21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약 4.4리터)**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일곱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숫양 둘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奠祭)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유화(宥和, 진노를 누그러뜨림)의 향기]**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된 어린 숫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搖祭)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맥추절은 무교절 기간의 보리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맥추절의 '맥'(麥)은 소맥 즉 밀을 가리킨다. 그때에는 밀 추수를 한다. 출애굽기 34:22에는 '맥추 곧 밀의 초실절'이라고 불렸다. 팔레스틴의 곡식 추수는 봄에 보리 추수로 시작하여 늦봄 혹은 초여름에 밀 추수로 마친다. 가을에는 포도주와 기름과 열매들을 거두어 저장한다. 맥추절은 추수감사의 뜻이 있고,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예표한다.

---

12) G. F. Oehl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p. 347.

맥추절 곧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고(행 2:1-4)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전도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날 베드로의 설교로 3천명의 영혼들이 구원 얻었다(행 2:41). 성경은 신약 성도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른다(롬 8:23; 약 1:18). 그 날, 누룩 넣어 구운 떡 두 개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성을 가진 구원 얻은 성도들, 아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징한 것일 것이다.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절기 법 중에 주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신 법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유월절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죄사함을 얻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에 하나님께 누룩 넣은 떡 두 덩이를 드려야 했다. 그것은 성령으로 중생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했다고 본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성이 남아 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더욱 분발하여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로, 구약시대에 안식일과 절기들은 성회로 모이는 목적이 있었다. 성회는 공적인 모임, 즉 공예배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교훈으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공예배를 귀히 여기며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 그에게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의 즐거움과 존귀함과 필요한 것들의 공급함을 주실 것이다.

23-44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23-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聖會)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7월 1일 월삭은 나팔절이다. 이 날은 안식일이며 성회(聖會)로 모였다. 이 날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오는 한 중대한 절기를 기억케 하는 뜻이 있었다고 본다. 그 절기는 7월 10일 속죄일이었다. 속죄일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절기이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속죄일이 중대한 날임을 암시하며 그 날을 준비시키는 절기이었다고 본다.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속죄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였다(고전 1:22-24).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속죄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7월 10일은 속죄일(욤 학킵푸림 יוֹם הַכִּפֻּרִים)이다. 이 날도 안식

일이며 성회(聖會)로 모였다. '쉴 안식일'(샵밧 샵바손 שַׁבַּת שַׁבָּתוֹן)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1:15에서는 '큰 안식일'이라고 번역되었다.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원어(인나 עִנָּה)는 '[금식함으로] 자신을 낮춘다, 괴롭힌다'는 뜻이라고 본다(BDB). 그것은 금식을 가리켰다. 속죄일은 금식일이었다. 이 날의 규례는 엄격하여 누구든지 이 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날에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히고 낮추는 것은, 그 날이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한 의미심장한 날이다. 속죄는 성경의 핵심 진리이다(고전 1:23; 롬 3:23-24).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담당하심을 예표하고 상징한다. 단번 속죄는 구약성경이 예언하는 바이다. 다니엘 9:24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sevens 혹은 weeks)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永贖)되며 영원한 의(義)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고 예언하였었다. 스가랴 3:9도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예언하였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밝히 증거한다. 히브리서에는 '단번에'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온다(7:27; 9:12, 26, 28; 10:10).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셨음을 증거한다. 히브리서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10, 12, 14,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

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라고 교훈한다. 이것이 주께서 성찬식을 통해 의도하신 바이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26).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심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한다.

〔33-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聖會)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聖會)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9-44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지(KJV), 잎(NASB)]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연중 3대 절기들 중 세 번째는 초막절이다. 초막절(카그 핫숙코스 חַג הַסֻּכּוֹת)은 수장절(收藏節, 카그 하아시프 חַג הָאָסִף)이라고도 하는데,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이다. 또 첫날(7월 15일)과 제8일(7월 22일)은 안식일이며 성회(聖會)로 모여야 하였고 특히 제8일은 '거룩한 대회'(아체렛 עֲצֶרֶת)라고 불렸다.

그 날은 연중 여섯 절기들 중에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에 번제로 드리는 수송아지가 모두 71마리, 숫양이 15마리, 1년된 숫양이 105마리이며, 속죄제로 드리는 숫염소가 모두 8마리이다(민 29:13-38).

초막절 혹은 수장절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의 절기이었다. 초막절 때에는 이미 곡식 추수는 끝났고 포도주와 기름과 열매들을 수확하는 때이었다. 그것은 즐거운 절기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수고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열매들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복주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에 7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했다. 그것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며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뜻이 있었다. 40년의 광야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주셨다. 그들은 40년 광야생활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였다.

초막절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그것은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소득을 기뻐하며 감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회적 환경과 여건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둘째로, 초막절은 이 세상의 삶이 광야 같은 나그넷길임을 알게 한다. 레위기 25: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역대상 29:15,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셋째로, 초막절은 우리가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보인다. 이 날은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감을 예표한다. 마태복음 13:30,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이제 속죄 신앙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통해 주의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둘째로, 나팔절은 속죄일을 알리는 뜻이 있었다고 본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막 16:15).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딤후 4:2). 오늘날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막 16:16).

셋째로,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인생은 나그넷길이다(대상 29:15; 시 39:5-7). 고린도후서 4: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된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24장: 등대, 떡상, 하나님을 훼방하는 죄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등대는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세 개의 거룩한 기구 중 하나이다. 본문에서 등대는 '순결한 등대'라고 불리며, 또 거기에 쓰일 감람유도 '순결한 기름'이라고 불린다. 등대를 관리할 자는 아론이었다. 아론은 회막 안에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끊이지 않고 등불이 켜 있도록 해야 하였다.

성막의 등대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요 8:12). 성경에서 빛은 지식과 의와 생명과 기쁨을 상징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지식과 완전한 의를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셨다.

등대는 성령을 상징하는 뜻도 있다. 요한계시록 4: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성령께서는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일곱 영, 곧 완전한 영이시다(계 5:6).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영이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기쁨을 누릴 것이다(갈 5:22).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깊은 의미에서 일체(一體)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신비를 믿는다.

또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뜻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며 생명이며 또 우리의 기쁨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했고(105절), 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92, 103절).

〔5-9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둘을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火祭)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陳設)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떡상도 성막의 성소 안의 세 개의 거룩한 기구들 중 하나다. 떡상도 '순결한 상'이라고 불리며, 거기에 차려지는 떡과 그 위의 유향도 '지극히 거룩한 것,' '정결한 유향'이라고 불린다. 그 떡은 여섯 개씩 두 줄로 늘어놓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후대의 유대교의 견해에 의하면 여섯 개씩 두 줄로 위로 쌓았다고 한다. 매 덩이는 에바 10분의 2, 즉 약 4.4리터의 밀가루로 만들었다. 그 떡은 매 안식일에 차리고 지난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떡상에 차려진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시다. 요한복음 6: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또 그 떡은 성경말씀을 예표하는 뜻도 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마태복음 4: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생명과 힘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와 힘을 주신다.

〔10-16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막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17-23절〕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보응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셨다. 공의는 하나님의 한 근본적 속성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벌을 요청한다. 죄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공정한 벌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훼방하고 저주한 자에 대해 죽이라고 지시하셨다. 그들은 그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죽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성소 안의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성경말씀을 예표했다. 성경에서 빛은 지식과 의와 생명과 기쁨을 상징한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요 8:12). 그는 각 사람에게 비취는 참 빛이시다(요 1:9). 또 성령께서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시며(계 4:5)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시다(계 5:6). 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시다(시 119:105).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와 생명을 얻었고 날마다 성령님의 깨우치심과 위로를 받으며 성경말씀의 참 지식과 생명과 위로와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둘째로, 성소의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말씀을 예표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시다(요 6:48).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그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속죄 신앙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속죄를 믿는 것이다. 또 성경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 4:4). 욥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고 말했다(욥 23:1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세 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여호와,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창조자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사 43:7)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사 43:21).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다(엡 1:3-14).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섬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며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그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25장: 안식년과 희년

1-22절, 안식년과 희년

〔1-7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자마르 זָמַר)[가지를 쳐(prune), 가꾸어]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가꾸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군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본문은 안식년 규례이다. 안식년은 국가적 절기이었다. 포도원을 다스린다는 말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농사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제7년에는 땅으로 안식하게 해야 했다. 안식년에는 농사짓는 일을 중단하고 쉬어야 했고 곡물이나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일도 쉬어야 하였다. 그 해에 밭이나 포도원에 스스로 난 곡물들이나 포도들은 아무나, 심지어 짐승들도 먹을 수 있었다. 신명기 15장에 기록된 매 7년 끝에 빚을 면제하라는 규례는 안식년 규례에 첨가된 내용이라고 본다. 안식년은 땅의 안식년일 뿐 아니라, 빚진 자들이 빚을 면제받는 복된 해이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2나 신명기 15:12에 히브리 종이 6년 동안 일하고 제7년에 자유케 되는 규례는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계수된 햇수를 가리킨다고 본다. 안식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예표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과 평안이 있다.

〔8-12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

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본문은 희년(禧年, jubilee)(KJV, NASB, NIV)의 규례이다. 희년도 국가적으로 계수되고 선포되는 절기이었다. 희년은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난 후 제50년을 가리킨다. 제49년 7월 10일에 나팔을 붊으로써 제50년, 곧 희년을 준비시켰다. 속죄일에 나팔을 붊으로써 준비시키는 것은 희년에 상징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복이기 때문이다. 희년은 자유의 해이었다.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속박된 사람들은 누구나 희년에 자유를 얻을 것이다. 희년은 만유의 회복을 상징하는 절기이었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밭이나 포도원의 소출은 먹을 수 있었다.

〔13-17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는 말씀은 희년이 기업의 회복의 해임을 뜻한다. 즉 사람이 가난하여 부득이 집이나 밭 같은 기업을 팔았을 때라도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절기이다.

희년이 기업을 다시 돌려받는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나 집을 매매할 때에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땅이나

집의 매매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셨다. 희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값을 많이 받게 하며 적게 남았으면 적게 받게 해야 했다.

〔18-22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 첨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규례 때문에 물질적 궁핍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평안한 삶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 안정이나 사회적 평안은 섭리자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만,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신다. 계명 순종에 보장된 평안의 약속은 어느 시대에나 진리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제6년에 3년 쓰기에 족한 복을 주셔서 안식년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제8년에 파종하고 제9년의 추수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안식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예표하였다. 사람은 범죄한 후 참 안식을 잃어버렸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가 되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참된 안식을 주셨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

께하실지어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심신이 연약하여 때때로 이 평안을 잃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하고 충만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히브리서 4:9-10,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는 그 안식의 때를 소망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다. 18절,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이사야 48:17-18,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예레미야 6: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우리는 계명 순종에 힘써야 한다.

셋째로, 희년은 기업의 회복을 주는 절기로 만유의 회복을 예표했다. 만유의 회복의 때가 있다. 온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만유의 회복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두실 것이라고 말했다(행 3:21). 사도 바울도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고 말하였다(롬 8:21). 또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는 소리와, 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계 21:1-5).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만유의 회복의 때를 믿고 소망해야 한다.

23-55절, 기업 회복에 관한 법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소유주이시다. 그러므로 토지 곧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권은 위탁적 개념일 뿐이다. 이것은 기업 회복의 법에 기초가 되는 진리이다. 인생은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날 것이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하였다(대상 29:1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며, 희년이라는 기업 회복의 제도를 주신 것이다.

〔24-28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게울라 גְּאֻלָּה)[되찾기](redemption)**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가까운 친척]**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이 그의 기업의 일부를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척은 그를 위해 그것을 사서 되찾게 해야 했다. 또 그것을 판 사람이 그것을 살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되살 수 있었다. 또 살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희년이 되면 팔았던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신 복된 규례이다.

〔29-31절〕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1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주년[1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

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집의 경우, 성벽이 있는 성안의 집과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집의 규례가 달랐다. 사람이 성벽 있는 성안의 집을 팔았으면, 판 지 만 1년 안에는 되살 수 있지만, 그 기간 안에 되사지 못하면, 그 집은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되어 영영히 그의 소유가 되며 희년에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집은 나라의 토지와 같이 되살 수도 있고 희년에 돌려보내어야 했다.

〔32-34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집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되살 수 있고 만일 레위 사람이 되사지 못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집은 희년에 돌려보내어야 한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의 성읍의 집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기 때문이었다. 또 그 성읍의 들의 사면(四面) 밭은 레위인의 영원한 기업이므로 팔 수 없었다.

〔35-38절〕 네 동족이 빈한(貧寒)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네쉐크 נֶשֶׁךְ)[이자, 높은 이자]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이자]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빌려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동족에게 높은 이자로 즉 고리대금으로 돈을 꾸어주지 말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 나그네를 돕듯이 그냥 도와주

든지, 아니면 낮은 이자로 혹은 무이자로 빌려주어야 했다고 보인다.

〔39-43절〕 네 동족이 빈한[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에베드 עֶבֶד)으로 부리지 말고 품군(사키르 שָׂכִיר)(a hired man)(NASB)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군(아바다이 עֲבָדַי)[나의 종들]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팔려온 동족을 종처럼 엄하게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대하며 일을 시켜야 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그의 신분뿐 아니라, 그의 모든 기업은 회복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21:1이나 신명기 15:12에 보면,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하고 제7년에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동안에 만일 희년이 끼면 그는 그 해에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뜻 같다. 또 희년에는 단지 그의 신분뿐 아니라, 그의 모든 기업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종들이므로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야 한다.

〔44-46절〕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주위의 이방인들 중에서는

영구적인 종을 얻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동족인 종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명하신다. 옛날에 종은 주인의 소유이었고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살 수 있었고 또 돈을 주고 산 종들은 영원한 종이 되어 자녀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였다.

〔47-55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贖)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꾼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군(아바딤 עֲבָדִים)[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군**(עֲבָדַי)[나의 종들]**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여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이방인에게 팔려 종이 된 경우 그 형제들 중 하나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의 종의 신분을 속량(贖良)하라고 명하셨다. 그는 희년까지의 연수를 따라 그의 몸값을 주고 그를 속량해야 한다. 물론 종이 된 자 자신이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속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은 히브리 종을 품꾼같이 여길 것이며 그를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종들이 속량되지 못한 경우에는, 희년에 그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종임을 강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본문의 진리를 요약하면, 첫째,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영영히 팔지 말라는 것과,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며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과,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인 종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이자(利子)를 위해 돈을 빌려주지 말며, 그의 친척은 가난한 사람의 기업이나 종의 신분을 속량해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희년에 다 회복이 된다는 등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규례들이다.

본문의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나그네이다. 이 세상의 참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가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나그넷길이다.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을 위해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린도전서 7:23, "너희는 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로,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 목표가 만유의 회복 즉 천국임을 보일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제도이었다. 우리는 만유의 회복의 때를 소망해야 한다. 또 우리는 우리의 책임 아래 있는 자를 너무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일을 시키되 인격적으로 시키고 또 우리의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믿는 교우들 간에 부득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6:10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교훈했다.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26장, 복과 화

레위기 26장은 복과 화를 선포한 말씀이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시내산 언약은 율법의 형식으로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지만, 그 언약을 어기면 화를 당할 것이다.

〔1-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木像)이나 주상(柱像, pillar)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石像)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의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 오늘날 우리도 현대적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3-6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時候)[시기]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명령을 준행하면 그들에게 씨 뿌릴 때에나 곡식 거둘 때에 비를 주셔서 1년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것이며 또 사회적 안정과 평안을 주셔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7-10절〕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향하며, 돌보며]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

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수의 적군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은 그들의 율법 순종에서 얻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의 언약을 이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11-13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시고 그들 중에 행하시며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복이었다.

〔14-17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베할라 בְּהָלָה)[갑작스런 재앙](BDB, NASB, NIV)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명령을 어기면 화를 당할 것도 경고하셨다. 그는 그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을 폐병과 열병 등의 무서운 질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케 하실 것이다. 또 그는 그들이 추수한 곡식을 대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므로 그들의 농사의 수고가 헛되게 하실 것이다. 그는 또 주위의 나라들을 대적으로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대적들

에게 다스림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18-20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懲治)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칠 배나 더 징치(懲治)할지라"는 표현과 그와 비슷한 뜻의 표현은 본장에서 네 번 사용되었다(19, 21, 24, 28절).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징벌하실 것이다. 그는 그들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농사가 헛되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되고 물질적 풍요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교만을 미워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21-26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거슬러]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감소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아프 아니 אַף אֲנִי)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셔서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들의 자녀들과 육축들을 잃게 하시며 인구가 감소하며 도로가 황폐하게 되게 하실 것이다. 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그는 그들을

전쟁과 무서운 질병과 양식의 부족으로 철저히 치실 것이며, 그들은 저울에 달아 주는 떡을 먹을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27-33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나 곧 내가](아프 아니 אַף אֲנִי)(KJV, NASB)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유화(속죄)의 향]**을 흠향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그는 그들이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는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는 또 그들의 산당과 태양 주상을 파괴하시며 그의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실 것이며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의 성소들은 황폐케 되고 그들은 이방 나라들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34-39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평안할 때 율법에 규정된 7년마다 지킬 땅의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땅이

황폐한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국들 앞에서 심히 쇠약해지며 쇠잔해지며 두려워 떨 것이다.

〔40-45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나 곧 내가]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13]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기억하겠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기억하겠으며] **그 땅을 권고하리라**[기억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14]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약속도 주셨다. 그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잡혀간 나라에서 자신과 그 열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가 그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돌아보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무슨 고난이든지 고난 중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히 그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가 그들을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은 그의 크신 은혜이다.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

---

13) 원문에는 '내가 기억하리라'는 말(웨자카르티 וְזָכַרְתִּי)이 문장 초두에 나와 강조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가 언약임을 강조하셨다.

14) 원문에는 '내가 기억하리라'는 말(웨자카르티 וְזָכַרְתִּי)이 문장 초두에 나와 강조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가 언약임을 강조하셨다.

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 복과 저주는 온전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을 감사하며 힘을 내어 더욱 믿음으로 살고 더욱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로, 계명 순종에 대해서는 물질적 여유,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 등으로부터의 환경적 안전과 평안이 약속되지만, 계명 불순종에 대해서는 질병, 물질적 궁핍, 전쟁에서의 패배, 기근과 식량 부족, 들짐승, 전쟁, 전염병, 열방 중에 흩어짐, 닥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놀람 등이 경고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바른 관계의 중요성을 교훈한다. 누구든지 저주 대신 복을 기대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율법을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낙심치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는 경우 즉시 겸손히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만세 전의 선택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대속(代贖)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27장: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야플리 네데르 נִפְלָא נֶדֶר)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사람이 어려운 서원을 할 때, 그는 여호와께 속한 자들에 대한 너의 정가(定價)대로 값이 정해질 것이니라](MT, NASB).

'서원하다'는 원어는 '어려운(특별한) 서원을 하다'는 뜻이라고 한다(BDB, NASB). 사람의 값은 사람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값이고 그 서원한 자를 무를 때의 값이기도 할 것이다.

〔3-8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定價)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1세겔은 보통 약 11.4그램이지만, 성소의 세겔은 약 10그램이었다고 한다(NBD).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 수 있었다.

〔9-13절〕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가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定價)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라.**

본문은 서원하는 가축을 바꾸거나 무르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다.

〔14-15절〕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定價)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본문은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무를 때의 규정이다.

〔16-25절〕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定價)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定價)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定價)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定價)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定價)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두락[마지기]수대로'라는 말은 '뿌리는 씨의 양대로'라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은 1말의 씨를 뿌리는 논밭의 넓이를 한 마지기라고 불렀다. '한 호멜지기'라는 말은 씨를 한 호멜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땅이라는 뜻이다. 호멜은 10에바로서 약 220리터의 분량이다. 대략 열한 말이다. 한 호멜지기의 밭의 값은 은 50세겔이었다.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은 정한 대로일 것이며,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 값에서 상당하게 감할 것이다. 또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하였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또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한다"는 말은 남에게 판 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 같다. 보통 남에게 판 땅도 본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 희년에는 돌려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땅을 하나님께 바치면 희년에 돌려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바친 땅이 되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는 뜻 같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경우, 그 밭을 무르려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가 정한 값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아야 했다. 희년에 그 밭은 판 사람 곧 그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26-27절〕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定價)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贖)할 것이요 만일 속(贖)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定價)대로 팔지니라.

가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려야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정한 것이면 정해진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면 속(贖)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그 부정한 짐승을 속(贖)하지 아니하려면 그 정해진 값대로 팔아 그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었다.

〔28-29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贖)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贖)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바친 물건'이라는 원어(케렘 חֵרֶם)는 '완전히 멸할 것'이라는 뜻이다. 아주 바친 사람이나 가축은 반드시 죽여야 하였고, 아주 바친 밭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돈을 주고 속량(贖良)하지 못하였다.

〔30-34절〕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聖物)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贖)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優

劣)을 교계(較計)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贖)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본문은 십일조에 대한 규례이다.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贖)하려면 그것 대신 그 금액에 5분의 1을 더한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소나 양의 10분의 1도 기계적으로 구별되어야 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참 소유자이시다(대상 29:11; 시 24:1).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으로 구원 얻은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다. 고린도전서 6:20,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들, 즉 가축이나 집이나 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고린도후서 8:7,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헌금의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야 한다.

셋째로, 본장은 가축의 첫 새끼와 땅의 곡식과 나무 열매와 우양의 십일조를 드림에 대해 규정한다. 구약성경은 십일조와 첫 열매를 명하였다. 말라기 3:8-12는,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강조했고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잠언 3:9-10은 소득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했다. 신약성도는 구약 성도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헌금해야 한다.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셤 메이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교회연합운동 비평, 복음주의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기독교신앙입문, 천주교회비평 등.

레위기 강해

2009년 8월 1일 1판; 2018년 4월 13일 2판;
2021년 3월 19일 3판;
2024년 10월 7일 3판-수정중

저 자 **김 효 성**

발행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팩스 02-337-4869
oldfaith@hjdc.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ISBN 978-89-98821- -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1.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6판]. 204쪽. 4,000원.
2.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4,000원.
3. 김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158쪽. 6,000원.
4.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193쪽. 6,000원.
5.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3,000원.
6. 김효성, **이단종파들**. [6판]. 70쪽. 700원.
7.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6판]. 44쪽. 2,000원.
8.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6,000원.
9.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0판]. 96쪽. 2,500원.
10. 김효성, **기독교 윤리**. [6판]. 240쪽. 4,500원.
11.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4,000원.
12.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10판]. 34쪽. 600원.
14. 김효성, **창세기 강해**. [3판]. 359쪽. 6,000원.
15.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2판]. 204쪽. 4,000원.
16. 김효성, **레위기 강해**. [3판]. 164쪽. 4,000원.
17. 김효성, **민수기 강해**. [2판]. 182쪽. 4,000원.
18. 김효성, **신명기 강해**. [2판]. 184쪽. 4,000원.
19. 김효성,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강해**. [3판]. 216쪽. 4,000원.
20.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3판]. 233쪽. 5,000원.
21. 김효성, **열왕기 강해**. [3판]. 217쪽. 5,000원.
22. 김효성, **역대기 강해**. [3판]. 255쪽. 6,000원.
23.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2판]. 129쪽. 3,000원.
24. 김효성, **욥기 강해**. [2판]. 195쪽. 4,000원.
25. 김효성, **시편 강해**. [3판]. 703쪽. 10,000원.
26. 김효성, **잠언 강해**. [3판]. 623쪽. 10,000원.
27. 김효성, **전도서 강해**. [3판]. 84쪽. 3,000원.
28. 김효성, **아가서 강해**. [3판]. 88쪽. 3,000원.
29. 김효성, **이사야 강해**. [2판]. 398쪽. 6,000원.
30.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2판]. 359쪽. 6,000원.
31. 김효성, **에스겔 다니엘 강해**. [2판]. 293쪽. 6,000원.
32. 김효성, **소선지서 강해**. [2판]. 318쪽. 6,000원.
33.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6,000원.
34.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3판]. 223쪽. 5,000원.
35. 김효성, **누가복음 강해**. [2판]. 373쪽. 6,000원.
36.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3판]. 281쪽. 5,000원.
37.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3판]. 236쪽. 4,000원.
38. 김효성, **로마서 강해**. [3판]. 145쪽. 4,000원.
39. 김효성, **고린도전서 강해**. [2판]. 122쪽. 3,000원.
40. 김효성, **고린도후서 강해**. [2판]. 100쪽. 3,000원.
41. 김효성,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2판]. 169쪽. 4,000원.
42. 김효성,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4,000원.
43. 김효성,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 강해**. [2판]. 92쪽. 3,000원.
44. 김효성,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강해**. [2판]. 164쪽. 4,000원.
45. 김효성, **히브리서 강해**. [3판]. 109쪽. 3,000원.
46. 김효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2판]. 145쪽. 4,000원.
47. 김효성,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3,000원.
48. 김효성, **요한계시록 강해**. [2판]. 173쪽. 4,000원.

☆ **주문: oldfaith.net/07books.htm　　전화: 02-334-8291**
☆ **계좌: 우리은행 1005-604-140217 합정동교회**